朝鮮日報
夕刊
四日(月)

伊太利軍第二次總攻擊開始!

總勢十二萬五千 目的地는『마칼레』

三日早朝一齊南下進軍

【아스마라三日發電通】아도와 악숨占領後 陣形을整備하여가지고 英氣를 못도두고잇든 伊太利北軍은 뭇솔리니首相으로부터 歐洲大戰伊太利軍休戰記念日인 四日中에 마칼레를 占守하라는 命令을밧고 再顯第二次攻略戰으로 드러가 三日새벽 午前四時를 期하야 伊太利空軍左翼으로부터 前線百哩에 及하는勢力部隊는 飛行機의 偵察 爆擊 戰車隊의 精鋭에뒤이어三分面으로부터 南進을開始하엿는데 今回攻略의 目的地는 티그레州南部에잇는바 먼저 마칼레地方을 突破하려하고잇다 그리고 이總進擊에 參加한 伊太利軍은 定規兵三個師團 黑샤스 二個師團及 輸重隊로 構成되엿는데 總數十二萬五千에 達한다 第一次攻略의 空軍挺身隊長으로 勇名을날린 뭇솔리니首相의 愛婿차노伯及 뭇솔리니首相의 令息 부루노 비트리오兩君도 차노伯의 指揮下에서 手腕을 發揮하고잇다 그리고 降將라스·그구사將軍도 部下에디오피아部隊를 引率하고 伊太利軍 산티니아將軍의 部隊에 參加하야 東導役을 마타가지고잇다 그리고 伊太利軍의 兵備는 大,中,小砲 合計 四百五十門 機關銃三千挺으로 이것이 飛行機의 爆擊과 呼應하야 에디오피아軍에 大脅威를 與하리라고 觀測된다

【羅馬三日發電通】아도와에 다음가는 北部의 要都 마카레는 이미 伊太利軍의 先鋒部隊에게 完全包圍되엿는데 二日 羅馬의 權威잇는 側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伊太利軍 主力은 마츰내 三日 새벽을 期하야 全線五十哩에 亘하야 進擊을 開始하야 마칼레攻擊으로 向하기로되엿다 即 맛시스트 차바우드·시라兩師團으로 構成된 中央軍은 三日總攻擊의先陣에서서 마칼레盆地로 突入할려인데 이와呼應하야 프라이마이에잇는 포리치오 비발將軍麾下의 맛시스트十一月二十三日師團及 카비나正規師團도 土民兵과 協力南下하야 一擧에 마칼레로通過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土民兵二大隊及 砲兵隊를 合한 遊軍伊太利軍主力의 左翼掩護의任務를 帶하고 南進하야 이미 다나킬平原을 一望下에 두고잇는 高地의南端에까지 進하야 待機하고잇는中이다 그리고 마칼레가困難하여지면 路落을 過에는 右遊軍은 獨立的行動을 取하야 다나킬平原을 長驅南下하야 지부티 아디스아베바間鐵道를 斷하리라고 觀測된다

伊南軍도活動開始

【羅馬三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三日左와如한戰況을發表하엿다 伊領소마릴란드地方의 伊太利南軍은 三日 오가덴地方으로 向하야 活潑한 活動을 開始하엿다

『마칼레』完全包圍

에前線部隊頑强抵抗

【마칼레三日發電通】三日 새벽進擊을 試하고잇는데 산치니아將軍을 先頭에 順調로 南進을 繼을 期하야 南下를開始한 伊太利軍部隊는 큰 損傷도 밧지안코 續하고잇다 이대로 나아가면 四利軍에 對하야 에디오피아前線部隊는 지안코 降將그구사將軍이 引率 日 正午까지 마칼레는 伊太利部隊는 右翼에서 頑强한 抵抗한 에디오피아人部隊 一千五百 軍의 掌中에 歸하게 되리라고

國際全貌

膠着된伊에戰爭

─晩鐘을듯는歐洲列國─

(一) 安在鴻

×

伊太利 에디오피아 戰爭은 지난 十月六日『아도와』의陷落을 轉期로 삼은듯이 明朗한 膠着狀態에 빠지고 마랏다『아도와』가 陷落된後 몃칠이지나 그西南으로 대략 七六千呎의 山岳속에 숨어잇는 에디오피아의 要都인『악숨』도 伊太利軍의 손에陷落되어 하일레, 실라시에皇帝는 물러지며 그 克復을 바르게하엿다고는 하나 그뒤로 오늘까지 南國의 主力의『마칼레』方面에서 一大決戰을 하리라고 그先聲이 울려 올듯이오 아즉도 乾坤一擲하는 大會戰이엇다 에디오피아는 드메나라이라 七六千尺으로 一萬二三千尺이나 되는 칼날가튼峻嶺과 深刻한 溪谷을 안고돌고 平川曠野의 땅이 野戰軍의 奔放하는 走動을 許치안흘뿐더러 平坦한 고장에도따로히 沙漠과 沼澤이 交錯된 바엇서 원낙 大軍의 行動에는 마땅치안흔터이니 戰局의 沈滯됨이 當然한 바이다 그러나 戰局沈滯의 原因은 에디오피아의 그러한 自然地理에만 잇지안허 英,佛,伊를 中心한 歐洲列强의 相互間의 牽制에 말미암음인것은 너무 常識的이어서 그表出할을 도리어 싱거운다고한다 伊에戰爭과 그國際的 關聯關係는 이미回敎를 거듭하야 論評된바이라 구태여 蛇足을 다룰바 아니오 차라리 그를機軸으로 國際政局의 動向의 全貌를 잠깐 다시 展望함에 그치기로한다

×

伊太利는 歐洲 資本主義國家의 後進國인者이라 그本國이 이미 鐵,石炭,石油等과 綿花의 栽培産出에 大量의 不足을 늣기고 잇는데 海外의 領土조차 납가러 잘가지지못하엿스니 一八七〇年 三月十一日『제노아』의 商業會議所가 紅海海岸에서 앗사부港을 買收한것을 始初로 一八九六年 三月一日『아도와』에서의『바라체리』將軍의 에디오피아 軍에게 大敗한等 매우 波瀾만흔 途程을 밟어 써 오늘날에 오것이오 一九一五年 四月二十六日 伊太利가 三國同盟의 責務를 헌신가티 버서버리고 英佛側에 加擔하는 軍事協力의 몸갑스로 맨들어슨 런던秘密協定을 벙골없는 섬은삭기로 삼어 爾來 멕고평이의 英伊에 흐흔英佛伊間의 默契,約定또는 條約을 매저가며 오늘날의 紛糾의 場面에까지 뭉치어오것이다 그러나 領土와 權益等 侵略의 對象의 압헤 걸리고 들리는 그들 列國의 關係란것은 오식갈신하는 遊女의 압헤 信義를 말할수업는 浩蕩郎들과가태서 무슨 恒久性이 잇슬수업는것이매 이제까지 멧번이나 그對立의 對手가 갈려왓것이오 오늘에는 伊에戰爭이 다시 英伊對立의 尖銳化로되어잇것을 契機로 자칫하면 第二의 世界大戰亂을 덜안지허보리라고 危懼하게되는 理由이다

×

文豪『웰쓰』의 小說的描寫를 기대릴것이어서 이뒤의 世界大戰은 반드시 이전의 世界戰亂처럼 아니될것을 알어야할 바이오 그時期도 꼭 某年某月에 오다고 할수업는바이니 이것이 時局에 對한 一個의 常識이다 이를테면 英伊兩國이 그르나 交戰하다고치고 (아즉도 그리速斷할바 못되나) 그것이 단단히 걸린때에 그影響이 먼저 極東에 미출수도 잇고 한편으로 나치스獨逸이 그틈을 타서『메멜』問題에와 奧地利 合同問題에 손을걸게 되고 極東의 움즉이는 形勢로 因하야 다시 米露兩國이 각각그渦中에 들어가게 되다고 볼것이니 이동안에 佛蘭西가 매우 알타까운 境地에 빠져 들어가는『紫舍의悲哀』에 헐덕이는 나라이것이오,그리되는 나종이면 印度支那等의 南亞細亞의 被壓迫國民들에게까지 前보담은 가르지안흔 새로운 不安이 잇슬수잇는것이니 그는 實로 歐洲의 앙카슴에서 繪經數千里의 東西의 兩大陣營의 對立戰線를 겨른것과가튼 大膽과 集中의 現象은 우선 업스리라고하는 內容의것이오 그爆發의 時期도 一個直發이 연방의 처지는 재로 얼른 그러케도 아니되는 原由도 여기에잇다 現今 全世界의 旣成한 大部와 先進國家들은 누구나 戰爭을 準備하면서 戰爭의 恐怖에 날뛰러 제리고잇다

英佛兩國代表間에 國際新機構協議

國際聯盟은單純한國際紛爭審議에局限코

局地的安全保障機構를確立

【쥬네브三日發聯合】佛國代表라발首相及英國代表호어外相 이든無任所相은 制裁調整委員會를 機會로 쥬네브에서 數次의 會見을 遂하엿다 右會見席上에서國際政局에 新紀元을 劃할計劃을提案을 檢討할것이라고 解釋되는데 英佛兩國代表는 全世界를包括한 平和機構인 國際聯盟이 創立以來 前後十有餘年에 漸次無力을 暴露하게된 事實을 考慮하야 國際的相互援助條約案을 基調로하는 集團的安全保障案에 對하야 具體的意見을 交換한것이라고 解釋된다 兩國代表가 討議하엿다고傳하는 國際新機構案의 要旨는左와如하다

一、國際聯盟은 數項에亘한 紛爭을 平和的으로 處理하고戰爭을 阻止하기가事實上 不可能한實情에鑑하야 國際聯盟의 機構를 單純한 國際紛爭 其他에關한審議에 局限할

一、聯盟을解消하는同時에 全世界를 局地的으로 分割하고 또 局地內에잇서 相互援助條約案을 締結하야 局地的安全保障機構를 確立할

右局地的相互援助機構에잇서 英國政府는 當然로카르노條約을再確認하고 라인國境線을 保障할義務를 負擔하리라고 解釋되는데 호어外相 이든無任所相은 라인國境線의保障을 辭하지안을意向을 示唆하고 그代償으로 佛國代表에對하야 左의條件을 提議한것이라고 解釋된다

一、佛國政府는 蘇聯邦과의間에잇서 相互援助條約案의 批准을 保留하고 新機構에合流할것

一、獨墺兩國의合邦(안슐루스)에 對한反對를 斷念할것

一、英國政府는 中歐及東歐에잇서 紛爭에 휩슬리는기를 바라지안는다

『에』國兩分案에 英國側도贊成

對和協工作方針變更?

【倫敦三日發聯合】英佛伊三國政府間의 和協工作은 마침내 流産으로 도라가制裁案을 發動할段階에 入하게되엿는데 英國政府에서는 그後和協工作에 對한方針을 變更하야 에디오피아帝國兩分案에 반드시反對하지안흐리라고 觀測되고잇다

北中에獨立的인 赤化防衛策確立

北中日本軍當局留念

【北平三日發聯合】四川 甘肅 陝西省方面으로부터 綏遠,山西,察哈爾,河北을 脅威하고잇는 共産軍에 對한北中赤化防衛問題는 滿洲國强化의 外廓工作으로 極히 緊要함뿐더러 北中東亞의治安確保를 爲해서도 緊急事라하야 日本의 北中排日廳止工作에 竝行하야 着手할 重要問題로되여잇는데 南京政府가 共匪討伐을 目標로하야 北中에 勢力을 扶殖하게됨으로써 日滿兩國의 赤化防衛策을 北中으로 獨立한 赤化防衛策을 確立할必要를 感케하는것임으로 日中合作에 依하야 鞏固한 防衛線의 設置가 絶對로 必要하다고하는 意見이 되여잇스며 一說에는 天津에서 軍段及政務鑛一派를 主體로한 防共委員會의 設立說이 傳하는데 日本北中軍當局은 宋哲元 商震等 實力派에 依하야 極히 强力한防共組織의 急速實現이 絶對必要라고하야 重大關心을 拂하고잇다

河北、察哈爾二省만의 北中新政權樹立

蔣氏의 閻、馮懷柔成功으로 山西、山東、綏遠編入은不能

舊西北系一元化實現

【北平四日發電通】北中五省政權은 蔣介石氏의 閻錫山 馮玉祥懷柔成功으로 山西는 벌서 圈外에 서게되고 따라 山東 綏遠을 第二段에 둘것이라는 說이 有力하게되여 河北 察哈爾 二省에 먼저 單獨의 單一政權問題가 急速擡頭하게되엿다 北平市長이 宋哲元氏의 手中으로 도라가게되여 河北察哈爾省主席商震氏 驅逐運動으로 轉化하게되엿고 따라 天津市長程克氏排斥으로 進展되리라고 河北察哈爾兩省及北平 天津兩市에 宋哲元氏勢力을 中心으로한 舊西北系의 一元化가 實現되여 事實上 宋哲元政權의 確立을 보게되리라고 期待된다

日本軍當局에서 糾察權發動

藍衣社團長等逮捕

【北平三日發電通】日本北中軍當局은 梅津何應欽協定에 基하야 排日分子取締에 關한 糾察權을 發動하야 三日朝來 北平憲兵隊는 藍衣社團長 丁昌의 後任으로 南方에서 派遣되여 北方藍衣社를 指揮하고잇는 李進才等潛行分子를 逮捕하야 마츰내 實力行使의 第一步에入하엿다

中國側逮捕分子도 日本軍에引渡

【北平三日發電通】北中軍正의 嚴한 要求實行을 回答하여온 中國側은 卽時 藍衣社員 國民黨部不逞分子의 逮捕를 開始하야 三日까지에 平津衛戌司令部及北平憲兵司令部는 十數名의 巨頭를 拘留하엿는데 中井天津軍參謀와 中國側과의 交涉結果 此等一派를 日本軍當局에 引渡하기로 決定하엿다

袁北平市長 正式辭職

宋哲元氏職을代行

【北平三日發聯合】北平市長袁良氏는 反日抗議運動의 責任을負하고 三日 正式으로 辭職하엿다 市長의職은 當分間 宋哲元氏가 事務를 代行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宋氏는 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와함께『北中에잇서 排日分子의 徹底的禁止』를·비롯하야 日本當局의要求條項을 逐次履行하리라고 解釋된다

新任市長에 秦氏

宋氏는暫定的兼任

【北平四日發聯合】袁良氏는 北平市長을辭任하는同時에 行政院長은 宋哲元의 平津衛戌司令及市長兼任을 發令하엿는데 이것은 暫定的의것으로 新任市長에는 察哈爾主席秦德純氏가 確定的이다 그리고 察哈爾省主席의 後任은 同省參議蕭振瀛氏라고觀測된다 그리고 袁良氏는 引繼가完了되는대로 南京으로 歸還할터이다

袁北平市長의 逆襲的回答

日本軍當局極度憤慨

【天津四日發聯合】川越總領事의 提議에對하야 商震 袁良兩氏는 모다 回答을보내엿는데 特히 商震氏는 大體誠意로서 實行을 約하엿으나 袁良氏는『우리管下에는 日本側의抗議에 表示된바와가튼 反滿分子가업고 도리혀 貴國의 不逞徒輩가多數潛入하여잇슴으로 그것을 取締하여주기를바란다』고 逆襲的言辭를羅列한 不誠意極한 回答이엿다 領事館當局은 이에 크게憤慨하고잇스나 맛든 從來의實行如何에 달것다하야 彼等의 態度如何로는 斷乎한態度를 取하기爲하야 監視하고잇다 그리고 袁良氏는 回答과함께中央에 辭表를提出하고 宋哲元氏가 兼務代理市長으로엿다

人事·集會

▲大串朝鮮軍參謀長 三日午後三時五十分發 北朝鮮을 經由하야滿洲에 赴하엿다 途中에羅津港 雄羅鐵道等을 視察하고 雄基로부터 先行한 大野高級參謀 櫻井大尉等을 隨行케하야 京圖線經由新京을 訪問하고 關東軍과 冬期에잇서 國境警備에 關하야 協議를遂할러인데 二十二日 午後二時五十分 歸京할 豫定이다

▲西村眞太郞氏(總督府通譯官)三日京城驛發滿洲에出張

▲富山修氏(警務局事務官)五日午後三時京城驛發鹿兒島에出張

南北戰線一齊進擊 伊政府서發表

【羅馬三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三日午前 戰況공뮤니케를 發表하야 伊太利軍은 南北戰線에서 一齊히 進擊을 開始하엿다는旨를 發表하엿다

八面鋒

◇ 陸上競技의 孫基禎君 三日東京에서『마라손』으로 世界最高新記錄을 作成。

◇ 壯元의 一學生으로보다、朝鮮의 一靑年으로보다、世界의 一選手로 躍進。

◇ 蘇州도 자랑이오、自然으로는 金剛山도 자랑이지만。

◇ 헤스것、새것으로서 朝鮮이 世界에 자랑할만한것이 果然무엇인가。

◇ 이제 孫君이잇슴으로 말미암아『영·코리아』(젊은 朝鮮)의 일홈은 世界에 자랑하게되앗다。

◇ 우리는、압흐로 各方面에 亘하야 만흔孫基禎이 나기를心祝한다。

◇ 自殺女가 遺族에게보내는 現金三十圓을 郵便所員이分食。

◇『사자人밥』으로알고먹엇다 하면 도리혀可憐하나、郵便의信用은 어데가서 차즐가。

로만스의南國濟州에도 落葉에눈물지는아가씨마음!
濟州아가씨 金福姬
新民謠 高笹影 作詩 金浚泳 作曲
(레코-드番號 四九三八〇)
빅타-레코-드

各種天幕 日覆 荷車 雨覆 防水 雨衣 室內裝飾一切
各種帆布 防水布 加工品 一式 及 各種寢臺製作販賣
泉商會テント部
朝鮮京城府竹添町一丁目九七番地
電話光化門五一七一番·振替京城一九七二番

滋養豊富料理簡單
생굴(生蠣)
地方販賣店募集
海蔘·貝柱·乾蠣 元山 三水商店

今般 京城南大門市場金敬植商店整理ニ付右商店ニ債權ヲ有スル者ハ十一月六日迄ニ府內三角町三永商店宛申越相成度右期日迄ニ申出無キ時ハ配當ニ加入セザル者ト認メ整理可仕候
昭和十年十一月二日
金敬植商店債權者委員

進勝!進勝!
먹으면 はれやか
頭腦의榮養劑
¥0.30 ¥0.50 ¥1.00

SPECTACLES
專門醫師 責任診察
檢眼無料
京城鐘路 青年會館 電光二九〇四二
東亞醫院眼鏡部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此際普通科 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兩科를 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贈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本會의特徵 開講인月 刊行學過 僅少每月 無代進呈
高等普通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高等科 普通科 十二冊 一個年 卒業(速修)(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一八九五番

京城鐘路二丁目
時計修理 完全
普信堂時計舖

Columbia
流行歌 荒野의孤客
盧銀紅·姜弘植
-四〇六四四-

福壽
원료감물
染料藥品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電車停留場前)
合資會社 福壽洋行直賣部
振替口座京城九三四番

國民保健의精華
品質은華 설면과 자가격은一同
眞綿의半價!
躍進日本!의覇者 登錄商標
이數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잇는 國産富士印絹綿
國産 東京
全鮮進出을目的하고 一郡에一店區域制度
本品의特長
1 價格이木綿에比하야 싼것
2 溫度가木綿보다倍以上되는것
3 永久히다시울지안는것
4 永久히쪼라지안는것
5 火災의念慮가적은것
國産富士印絹綿總發賣元 株式會社 中川商會
東京市
中鮮總代理店 京城府貫鐵町一四二番地
綿布 絹綿 絹織 興信商會 綿絹部
電話光化門四二三番
國産品 富士印絹綿 Fujikinuwata

秋期男女學生大募集
南大門自動車學校
(改正學則要二錢)
第一實習場(阿峴里) 第二實習場(阿峴里) 市外各地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②〇八六七番 振替京城二〇五六

全鮮第一映畫殿堂
團成社
十一月四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四五分 午後一時五〇分 六時四〇分
特別料金
◇東和商事提供
◇場로비-스앗샤社超大作日本版 三大巨作並立强力陣!!
黃昏의원나
當代의名歌手、韓ロ한詩며、그림이며、노래의永劫未完成交響樂의高品에서求할수잇는大作品이다
◇유나이테트社超特作日本版 H.B.와一나 主演
소렐과그아들
前作無限映畫보다훨신나은崇高한父性愛의典型的驚이다江湖人士의離淚도誘化하리라!
◇P·C·L·超特作全發聲映畫 山本嘉次郎 監督
いたづら小僧
P·C·L·提携第一回發選作品 名目鮮明의가리、堂堂朝鮮最初封切斷行!(次週三大作品封切) 자취업는男子、빗나는百合、あるぷす大將

洋畫專門
浪花館
二人の男女の悲戀を描く青春哀戀篇!!
△船頭可愛いや
四、蒲田超特作サウンド版 原作脚色 本間一 監督 宗本英男 主演 上原謙 桑野通子
戀か!!義か!!つてば響く江戸ッ子の精華!新人大下監督が熱と力一杯の傑作
△血刀の舞
三、下加茂特作サウンド版 原作脚色 中村敬 監督 大下宗一 主演 結城一郎 光川京子
△果樹園の女
二、蒲田特作サウンド版 原作脚色 北村小松 監督 島津保次郎 主演 栗島澄子 山內光
一、眼と耳の新聞 第二百三十四輯
上映順
回公演(第一回十一時三十分 第二回三時、第三回七時)
三十一日封切 秋穫十一月第一陣松竹先ブ巨彈を放ヲ

桃花劇場
椿姬
十一月四日부터公開 晝夜二回大公開!! 晝一時半 夜七時半始映
◇佛國西데이도프社超大作全發聲
◇J·O·太秦全發聲超大作
에달푼사랑、애끗는사랑、눈물의사랑!!사랑이것이悲戀의悽境!!
時代劇 紺屋高尾 全八卷 監督 志波西果氏 主演 谷幹一氏
米國그레루바社超特作 映畫 누가보든지누가듯든지天下一品의
西部大活劇 勇士의鐵拳 全五卷 主演 알호-시氏
次週來公 女子萬歲의 香港 蒼空

工業景氣만은上昇 工賃은反對로低下

昨年中의工場勞賃調査 各種職工은大增加

조선총독부조사 소화구년중의전조선공장임은(賃銀)을 종업자오십인이상잇는공장에 대하야 조사한바에의하면 공장수는 사백오개소 종류는 사십일인데 종업원수 팔만사천이백오십륙인의 평균임은은 다음과가티 공업경긔와는반대로 임은이대개 떠러젓다 일일평균임은은 다음과갓다

		今年	前年
日本內地人	男成年工	[illegible]	[illegible]
	同幼年工	[illegible]	[illegible]
	女成年工	[illegible]	[illegible]
	同幼年工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男成年工	[illegible]	[illegible]
	同幼年工	[illegible]	[illegible]
	女成年工	[illegible]	[illegible]
	同幼年工	[illegible]	[illegible]
滿洲人	男成年工	[illegible]	[illegible]
	同幼年工	[illegible]	[illegible]

그리고 종업시간은 일본내지인 성년공(成年工)은 아홉시간십이분 일본내지인 녀공의 여덜시간이 최저로 기타는 열시간가량으로 종업원은 조선인의 칠만사천팔백오십일인이 가장만코 일본내지인은 륙천오백십인이 만주국인은 이천칠백구십오인이다 이를전년도에 비교하면 조선인이 이만륙백구십삼인 일본내지인이 사백륙십삼인 만주인이 일천이십구인 모다 이만이천일백팔십오인이 증가되엿다 이와가티 공업의경긔는 조와젓다는데 직공임금이 떠러젓다는것은 공업자본의 힘이직공의임금을 더혹취하고 잇다는것을일면으로 말하고잇는것이다

仁川府에서 西公園大擴張

【仁川】 경인교통이 빈번하야짐에따라 경성근방에서 일요일등공일이면산보겸인천으로오는 사람이 대단히만흐나 하로에안락을줄만한 유원지가 월미도(月尾島)만으로는 부족함으로 시내 서공원(西公園)을 확장계획중이엇는데 최근 산십번장(山十番莊)건물과 기지칠천여평을 그소유자 식산은행 성업사(成業社)와 부당국간에 사만이천원에절가되야 경영방법등으로 인하야 부회를 소집하리라한다 전긔유원지가 완성된다면 긔지만일만오천여평에 각종오락긔관을 설치하야 경인시민의 유일한유원지가 되리라한다

江陵에窒扶斯

【江陵】 강릉읍옥정 김원도(金元道)대회정 야전풍삼랑(野田豊三郞)은 진성장질부사인것이 판명되어 유괴경찰당국은 랑매하야 부근일대를 교통차단하고 소독등을 하야 극력방역책을 강구하며 도수천매에 선전삐라를 돌녀 일반에게 주의를 환긔하고 잇다

端川赤農事件 十名豫審廻付

【咸興】 금년 사월경에 단천서(端川)에 검거를 당한이래동서에서 륙개월동안이나 취조를밧고잇든 단천적색농민조합사건 최민환(崔珉煥)등십명은 지난삼십일 함흥법원 검사국에 송국되엿든바 이일십명전부가 긔소되여 동법원예심에 회부되엿는데 예심회부된 피고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崔珉煥 李相錫 金中孫 金尙仁 韓海錫 蘇駿孫 李基信 金業烈 韓昌燮 金樂鎬 徐麟壽

來九日夜에 科學講演會 靑年會館에서

과학조선(科學朝鮮)의 건설과 생활의과학화를 목표로 운동선상에나선 과학지식보급회(科學知識普及會)와 발명학회(發明學會)에서는 이번에 공동주최로 오는구일(토요일)오후 칠시반부터 시내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鍾路基督敎靑年會館)대강당에서 개최하리라는데 그연제와 연사의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演題及演士

一、電球의發達 李萬珪

一、獨逸農村의科學的經營 李克魯

一、朝鮮發明界의現在 金容瓘

南原稅務署員等을 淳昌署에서引致

酒造業者關係인듯

【南原】 지난일일 돌연전북순창경찰서원(淳昌警察署員)이 남원에출장하야 남원세무서에 근무하는 간세과장김재옥(金在玉)씨와 동세무서내에 잇는 주조조합리사김학모(酒造組合理事金學模)씨를 인치하야 갓다 사건의 내용은 극비에 부침으로 상세히알수업스나 모방면으로부터 탐문한바에의하면 요사이에 남원세무서관내인 순창주류제조업자를 중심으로 순창서에서 엇더한 단서를잡고 엄중한조사를 진행중이라는데 아마 이사건관계인듯하다더라

富川郡下에 怪牛疫 鼻疽病인가

일시 소식이끈어젓든 탄저병(炭疽病)이 또발생하기시작하야 소와말을 치는집에대공황을 인으키고잇다 경긔도 부천군 대부면남리(富川郡大阜面南里)림춘옥(林春玉)의집 소가 지난시월이십팔일에 발생하야 이십일일에 죽엇는데 검시한결과 탄저병으로 판명되엇슴으로 경찰에서는 이병의 전염계통을 조사하야방역에분주중이다 그리고 부내효제동(孝悌洞)일백사번지 오광식(吳光植)의집에도 이일오후에발병하야 이애시경에 죽엇슴으로 소관동대문경찰서에서는 비저병이나아닌가하야 곳경찰의를 청하야 검시하기로되엿다

南滿地方엔大雪 西北寒風이襲來

本格的으로추워진다

이일밤부터 음흉하든일긔가 삼일새벽부터비가되여 삼일 종일비가오고나서 하늘은 의연히 형세가불온하야 돌연히 치위지며 김장재촉을 하지아니할가하야 가정의주부들은 근심되고잇는데 과연사일측후소에서는 날이거치면서 서북풍이불며 치위지리라는경보를 나리고잇다 경성측후소의 천긔타진을 청한즉 어제이래의비는 일본해 중부와 동지나해동부에 칠백오십팔『미리』의 저긔압이 불련속(不連續)에따라 동북동으로 진행한까닭에 온것으로 이비는 남쪽으로 만이와서 부산(釜山)가튼곳은 오십『미리』나왓다 사일아츰부터는 칠백칠십팔『미리』의 우세한 고긔압이 몽고에서 만주를거처 내밀기까닭에 북만주일대에는 눈(雪)이 상당히오고 조선은 일긔는 회복이되야 바람이강하고 치위가 급작이 오리라한다 가정의 겨울준비도 점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될터이다

◇讀書의 가을……총독부도서관에서、

貞洞蘇聯領事館 最近放賣說盛行

馬山과淸津것은팔기로確定 "俄館播遷"의史的建物

새로운 로서아를 대표하야 정동(貞洞)마루터에서 낫과 마치를 엇그린 붉은긔를 달고잇든 싸베ー트령사관을 그긔지와 아울러 팔리라고 전하고잇다 이싸베ー트령사관은 일즉이 제정로서아시대의 로서아 공사관으로 잇든곳이요 그보다도 더구나 한국 을미년(乙未年)난리에는 리태왕께서 란을 피하섯다는 아관파천(俄館播遷)사건으로 유명한곳이다 최근에 이르러 그긔지 일만여평에 건물까지 껴서 일금 륙십만원에 방매를하게되고 그것을 살사람은 동대문밧 모부호로 대략 내정까지 되엿다고 전하고잇다 그리고 동시에 함북 청진(淸津)과 경남마산(馬山)에 로서아령사관의 소유로잇든건물과 기지도방매하게 되엇다는데 이청진과 마산것은 현재쓰지아니하는터임으로 팔려는것이고또 경성령사관은 빗싼땅에터만넓게잡고 잇슴으로 이것을팔아서 땅갑시싼곳으로 옴기려한다고 전부터 전하는바도잇든것으로 역시그런뜻으로 팔려는모양이라고한다

京城것은팔지 안는다고 領事館側否認

별항 로서아령사관 방매설에대하야 령사관을 방문하니 다음과가티 사실을 부인한다

마산(馬山)과 청진(淸津)것을 팔기로된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재 쓰지아니하는채 비어두엇스니까 처리하기 위하야서요 정동(貞洞)에잇는 이것은 팔지아니합니다 더구나 령사가지금 출타하고 업스니까 나로서는 확언키가 어렵습니다

外事課側談 아직그런말은 못들엇다 그런데 로서아령사관뿐이아니라 다른곳에서도 현재 외국공관이 비싼땅을 가지고잇는것보다는 그것을팔아서 적당한곳에 이전해도 조치안흘까하는의견은 전부터 잇섯다

師範學校는全部 總督府直轄校로

第二次初等校擴充에並行하야 九年內一道一校完成

래명년도부터 시작할 제이차보통학교확충계획의 실시와 병행하야 초등교원양성긔관을 확충하고저 그간학무국에서 사범학교증설계획을 세우고 잇든바 최근에 학교수와 학급편성방법 경비등에관하야 구체적 계획을 세웟다 현재사범학교는경성、평양(平壤)대구(大邱)의 세남자사범학교와 경성의여자사범학교를합하야 네학교바게업는데 명년부터 구년간에 남자사범 구개교와 여자사범두학교 합십일교를 증설하야 남자사범은 각도에 한학교식을 완성하고 여자사범은 긔설 경성사범과 새로 평양과대구에 신설하야 세학교의설립을 완성하게될터이라한다 따라서 이사범학교 증설계획이 완성하게되면 매년 일천삼백명정도의초등교원을 즐여서어 채용할수잇게되야 제이차확충계획이 완성하야도 교원이 부족치는 안흘터이라한다 그리고 사범학교는 도립으로하지안코 전부 관립으로하야 총독부의 직할학교로 경영하되현재와가티 수업년한오개년의 보통과와 중등학교졸업자의 수업년한일개년 연습과의 두부문으로 나눌터이라한다

仁川商街에大火 商店五戶를全燒

損害는三萬五千圓

【仁川】 사일오전한시 사십분인천 외리(外里)이백이십구번지리태호(李泰鎬)씨의 광운(光云)상회에서 발화하야 그이웃태창(泰昌)상회 전선(全鮮)공업사 동아(東亞)양복점 횡전(橫田)약방등을 전소하얏다 약이시간후에진화되엿는데손해는삼만오천원에달한다하며 보험액은 일만오천원에 달한다 원인은 실화로판명되엿다한다

自働車에치어 四歲兒가重傷

이일오후 두시사십분시외 도화동(桃花洞)삼백사십륙번지 압길가에서 네살먹은어린애가 자동차에치어중상을바덧다 시내청운동 … 옥부인병원에 입원하야 치료중이라는데 전치하도록 오주일을 요하는중상이라한다

鰮魚都!漁大津엔 盛漁期에도凶漁

一般漁民不安焦燥

【漁大津】 매년 미증유의 온어(鰮魚)대풍획으로 함북산업의 수위를 점령하고 잇든 어대진항은 금년은 례년보다 더한층기대되는바 잇섯든바 전년동긔에 비하면 성어긔(盛漁期)임에도 불구하고 근일 청어리가 잡힐가망이업슴으로 일반어민과 유비제조업자(油肥製造業者)들은 대단히불안중이라하며 이대로 성어기가 지나가버리면 일반어민들의 생도가 막연하다고한다

逃走한犯人이 手錠을返送

【仁川】 경찰계에 웃지못할『넌센스』! 지난이일 오후팔시경 인천사정(寺町)공동변소 근방을배회하는 수상한괴한이잇서 그는전과이범의 리모(李某(二三))로 행동이 자못수상함으로 동행하든 박치영(朴致榮)형사가 이를체포코자 바른편팔목에 수갑을채엿든바 범인은 형사를부리치고 수갑을채인채 도주하고말엇섯는데 지난삼일오후에 지방법원인천지청압 『포스트』에 그수갑을 경찰서행이라는 꼬리표를 붓처너헛다는 긔괴한 『넌센스』로 인천서에서는 실색하야 범인을엄중수색중이라한다

運動競技

雨中에展開된 京義러비

京城壓倒的勝利

新義州와 京城兩地方의 親睦競技인 第一回定期러비ー戰은 豫定과가티 三日(日)진가을비가 부질업시나리어 진흙투성이로된京城球場에서 午後四時二十分부터 李鍾璨(主審)尹成欽 丁顯燮(線審)三氏審判下에 新義州軍의킥어프로 열리엇다 新義州軍은練習不足과 처음당하는 競技當日의降雨로因한 不良한『컨듸숀』으로 마음것技術을 發揮치못하엿고 京城軍은 多數學窓現役選手들의멤버ー에끼어잇서 勝利로부터優勢를 보이며 開戰二分만에 京城軍의張世煥 最初의『트라이』와 十五分에 金化泳의『트라이』同二十九分에 張君의 再次『트라이』로 一擧 九點을 거두엇슴에 反하야 新義州軍은 十七分에 FW線의 總攻擊이 잇섯스나 好機를 逸하야 前半은 九對零으로 京城이앞섯다 新義州不利하얏다 後半戰에 드러가 新義州軍 雪辱코저 猛襲하엿스나 效업시 도리혀 一分에 京城의 逆襲을바더 張君의 『트라이』로 十二對零 同十分에 京城金錫英의『트라이』로 三點을 加하야 十五對零、同十五、十七分에 馬鍾國의 兩次『트라이』를 골로 十點을 加하야 結局 二十五對零으로 遠來의 新義州軍이 敗하엿다

【京城】 FW [illegible] HB [illegible] TB [illegible] FB [illegible]

【新義州】 [illegible]

京城25 (16 9…0 0) 0新義州

◇寫眞은 泥濘中에 決行한 京城對新義州럭비戰

長足進步한蹴法 蹴球優勝의京蹴

主將李君戰後感

【東京電話】 京城蹴球團이 全日本의 覇者인 慶應BRB를 決勝戰에 二對零으로 擊破하엿다함은 昨報한바와 갓거니와 京蹴의 監督兼『캡텐』의 重任을다한 李榮敏君은 優勝直後에 다음과가튼 所感을 말하엿다 『나는 十年前인 一九二六年度에 最初로 이競技場에 朝鮮蹴球團의 一員으로 出場한적이 잇섯습니다 當時에比하야 今日의 日本內地 蹴球界는技術에잇서 長足的進步를 보이고잇슴에 아니놀낼수 업습니다 日本內地팀은『킥』하는것이 만히 進就되엿다고 봅니다 이곳에 와서 勝利하겟다는것보다 모든것에 잇서 끗까지 싸와보겟다는意志로써 어느程度까지 日本팀을 肉迫할수잇는가?의試驗을 證得할라고 出場한것이 意外의成功으로 優勝한것입니다 그리고作戰은 거의『아웃사이드·프레이』를選擇하엿습니다』云云

마라손에優勝한 孫基禎君談

【東京電話】 全日本마라손界의俊銳三十餘名이 總登場한 一大決戰에 잇서서 養正高普의 孫基禎(二三)君이 二時間二十六分四一秒란 世界最高記錄으로 優勝하엿다 함은 昨報한바어니와 決勝點에 드러온 孫君은 競技場內의 잔듸풀우에서 숨을돌리며 말하되 『一週間前에 東京에와서 指定走路를 不過두번 달니여보앗습니다 오늘은 出發時부터 『컨듸숀』이 조와저서 이와가티好調로 두려웟다는 自信이생겨젓습니다 往路보다 歸路가 더욱 힘들지안엇습니다 途中에 自動車『캐소린』냄새로 숨이매킬 지경이여서 苦痛을 바덧습니다 지금까지 四回에 亘하야 東京에서 열린 競技會에 參加하엿스나 오늘가티 모든것에 好調인적은 업섯습니다 내가『마라손』을 始作하기는 三年前으로 朝鮮마라손의雄 金恩培氏의 뒤를니어 練習을거듭하고 잇섯습니다 그리고 前年에東京에서 열린 競技會에 數次 失敗한적이잇서 그經驗으로 이번에는 往路에는 二三位로 달니다가歸路에드러서 全力으로 달니엇습니다 身體의『컨듸숀』과 食事는 큰關係를가지고 잇슴으로 明大스케ー트部 合宿所에 엇기를 原願하엿습니다 先般들은 『도마도』가 營養이 만타고 그것으로 여러가지料理를 만드러주어 먹엇습니다 오놀의 조흔記錄도 先輩들이 만드러주엇스므로 엇습니다』라고 웃고잇섯는데 明大在學의 先輩들이 달려와 길을 에워서 孫君을 부축하야 合宿所인 蘇谷關山町에잇는로 다리고갓다

◇記錄狂!이번孫君이 作成한 世界最高記錄二時間二十六分四一秒는 從來世界最高記錄인 『자바라』(亞爾然丁)選手의 二時間三一分三六秒(로스안젤스·올림픽大會에서作成)를 打破하기四分五五秒로서 世界에자랑할驚異的大記錄이다 이번『마라손』에는全日本의 强豪三十餘名이 總登場한一大決戰이엇스며 孫君으로서도 從來에朝鮮과日本서 好記錄을作成하엿지만 인제야비로소그의宿望을達한셈이다 當日에는 南昇龍(明大)君도 끗까지力走하야 二時間三六分五二秒로 第四位에 入賞되엿다

明治神宮陸上 柳君萬米二着

▲一萬米決勝(一般) 1、村社(關東)三一分七秒八(日本新記錄) 2、柳長春(朝鮮)三一分五九秒八 3、竹中(關東)三二分一〇秒六 四、小林(北九州)

▲走高跳決勝(一般) 1、朝隈善郎(關東)一米九〇

▲百十米障碍(一般) 1、村上(關東)一四秒六(日本新記錄)

▲四百米障碍(一般) 1市原正雄(近畿)五五秒六

▲三千米障碍決勝 1今井(關東)九分三八秒二(日本新記錄)

明治神宮拳鬪決勝

【東京電話通】

【프라이級】 小倉(明大) 判定 大山(關西)

【빤탐級】 木村(中部) 延長 濱口(關大)

【페더ー級】 宮間(中部) 判定 花岡(關大)

【라이트級】 永松(明大) TKO 姜泰珍(關大)

【웰터ー級】 木原(日大) 延長 澤田(關東)

【미들級】 齋藤(專大) 延長 白井(關大)

官專蹴球戰 十、十二兩日開催

朝鮮專門學校 體育聯盟主催 第九回 官專蹴球大會의 抽籤結果는 旣報한바와갓거니와 大會期日은來十日午前十時와 十一日午後一時에 京城運動場에서 열기로決定되엿다한다

朝滿臺對抗競技 朝鮮代表選手 來十日에出征

朝鮮、滿洲、臺灣對抗陸上競技大會는 來十六日부터 二十三日까지 臺北、臺中、臺南의 三都市에서擧行할터인데 朝鮮代表選手는 다음과가티 決定되여 來十日午後三時 京城驛發 十一日正午門司出帆遠征의 途에 오를터이다

(監督)齋川英雄 (코ー취)丹生正 (選手)▲主將 劉約翰(鐵道) 荻野(遞信) 岩本(遞信) 韓諸錫(同) 金仁植(同) 文允書(平南) 池永龍(平南) 金祐澤(同) 金煥民(殖銀) 李實完(黃海) 野澤(全南) 姜泰鎭(慶南) 本鄕仁美(京師)

鐵道蹴球에平鐵優勝

鐵道局友會主催의 全朝鮮鐵道蹴球大會는 三日午前九時半부터暴雨中에 旭川球場에서 열리엇는데 第一回戰에 平鐵對釜鐵이對戰하야 五對零으로 平鐵이 이겨서 京城鐵道局과 決勝戰에서 對時한바 二對一로 雨中優勝하엿다

平鐵2 (1 1…1 0) 1京鐵

天氣豫報 北西風晴寒

七五八미리의 低氣壓은 日本海中部와 東支那海東部에잇서 不連續線을 伴하고 共히東北東으로 進行하고잇다 그까닭에 國境을 除하고 昨日全朝鮮에 降雨가잇서서 釜山은五〇미리를 넘엇다 今朝北滿關西地方도 國境은雨 其他는曇하며 七七八미리의優勢한 高氣壓은 蒙古에서 滿洲로 떠저왓스므로 明日은 日氣가조호나 치워지고 沿岸은 北風이 强하리라

昨日	最高	一四、五
氣溫	最低	一一、〇
今日	正午	一七、六

暴風警報

十一月四日午前八時四十分仁川觀測所發表 高氣壓에伴한 季節風으로서北風이强하고 氣溫이急降하리라 平南北、咸南北、黃海沿岸을警戒한다 低氣壓은 日本海中部에잇서 七百五十六『미리』를示하며 東北으로進行하는중이다

同和 止咳露 京城府和泉町五 株式會社 同和藥房

新築落成 東洋劇場 開館

裵龜子樂劇團鄕土訪問大公演

斯界의最高水準을 것는 裵龜子樂劇團의 百戰練磨된 演技는 盛裝豪華한 本劇場大舞臺와 相照하야 盛觀의 盛觀을 呈할것이다 朝鮮初有의 本格的樂劇!

同時封切上映할 獨逸써네이린스社超特作『眞紅의戀』八卷과 P.C.L特作『라디오의女王』七卷의 偉觀!

正히演劇레뷰映畫의 三重奏的空前의 記錄的特別大興行! 오다! 보라!

京城竹添町一丁目 電光(3)二一五四番

머리가조흔사람 바느질도잘한다

홈질, 감침질은오주손ㅅ재조 제일어려운것이마름질

부인네들이 옷을 지는데는첫재 마름질 둘재 바느질 입니다 흔히 바느질을 꼼꼼 하는 분들도 마름질을 잘못하는데마름질을 잘하지 못하고서는 바느질을 잘한다고 할 거덕지가 업서집니다 그러나

바느질이라고

한마듸로써 고만말해 버리는중에도 것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아주 맵시나게 맨드는 옷솜씨와 꼼게 홈솜씨와 꼼게 혼다든지 양전하게 감친다든지 바눌을 쓰는 손ㅅ재치와는 아조 다른 것이 잇니다 그전에는 흔히 손ㅅ재치가 잇는 사람을가지고 바느질을 잘한다고 떠들어 왓지만본 실상 바눌을 쓰는데 익달한 사람으로서도 옷솜씨에 이르러는 보잘것업시 떨어 놋는수가 업지 안흡니다 그러고 보니 손ㅅ재치와 옷솜씨와는 전연히 따로거입니다 그

두가지를 혼동

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

동경녀자전문학교(東京女子專門學校)에서 동경시(東京市)의 소학교교원(小學校敎員)과 협력하야 연구해 본 결과

(가) 바눌을 재게 놀리느냐 더디게 놀리느냐 하는것은 그 사람의 지능과 밀접한관계를 가지고잇서 지능이 놉픈 사람일싸록 바눌을 재게 놀리되곱게 혼다든지 양전하게 감치는 것과 가튼 것은 전연히 그 사람의 지능과 관계가 업서서 그 성질이라든지 또 그 숙달한 정도에 의하는 것이라고。

(나) 바눌을 재게 놀리고

더듸게놀리는

그 것과가치 옷솜씨는 지능과 기픈 관계를 가지고 잇슴니 홈질과 감침질이 서투른 아히로서도 좀 지능이노픈 아히는 제법 옷솜씨를 보이게 되는데 대해서 홈질과 감치질에 익달한 아히로서도 좀 지능이 나즌 아히는 옷솜씨가 도리어 떨어진다고。

×

★ 옷솜씨는 지능에 좌우되지만 바눌을 다루는 손ㅅ재치는 지능에 좌우되지 안는 것입니다。 홈질이나 감침을 잘한다고해서 꼭 모든 바느질을 다잘한다고 칭찬할수는 업는것입니다。 홈질이나

감침질은 배화

서 되고 익혀서 되는것이지만 옷솜씨에는 정도가 달리어 잇습니다。 다소 홈질이나 감치질에 서투른 아히라도 옷솜씨로 보아서 장래에 바느질을 잘할까 못할까 미리부터 판단해낼 수가 잇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은 모도다 그까지 바느질이야 하고 코ㅅ방귀를 뀌면서 바느질을 업신녁깁니다마는 결코그런것이 아니올씨다。 그런 사내를 보잡아다가 바느질을 아리키기로해 본다면 그중에는 코를 떼고 얼골이 붉거질 사람도 도를지 안하오리다。

×

아즉 연구는 해 볼때가 업스나 옷솜씨만 못지 안케 그

사람의 지능과

관계를 가진ㅅ것은 마름질일까 합니다。 가튼 감을 노코서 저고리를 찌저 고름을 내고 여괴를 찌저 동을 맨드는데 허푸게도 되고 알뜰케 하게도 되는것이라 상당한 지능이 업시는 업는업는 요량이 나서지 안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바느질은 가르치면서도 마름질은 시켜보지 안습니까? 그아히의 지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시켜보는 것이 조치 안켓습니까?

찌개못끄러먹겟소! 「고기ㅅ금이비싸다 고기갑슬내려라!」조선가트면 찌개못 끄려먹겟다는 소동이되겟지요—미국데트로이트지의 안악네들은 지난달에 고기ㅅ간에서 고기ㅅ금을올렷다고 대반대를하고 비매동맹(사지맙시다!)까지 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가두시위행렬까지 하면서 야단을햇스니 코 큰사람들이 녀자라도 어세긴한모양이지요

우리의 몸은 모순덩어리

—거러단니는것부터부자연—

② 鄭槿陽

네발로 거러다닌다면 그다지 큰 허이될지는 안흘것 입니다 네발로다니든것이 두발로다니게 되고보니 거러단이는것이 대단히 불안정하여질수밧게업습니다 그리하야 때로는 쓰러지기도잘합니다 특히 녀자들에엇서서는 요새 뒤쭉치가 놉흔신을신끼때문에 뒤욱뒤욱 안정치 못하고 보기에도 아심아심하리만치 위태해보이는것입니다 두발로 거러다니게된 까닭으로우리들의 골반(骨盤)의형상이변하게되엿습니다 이리하야 아이나키가 매우 힘들게되엿습니다 사람가리 아이나키어려워 하는 동물은 업슬것입니다 다른동물들은 우리가보든 개나도야지로지드래도 사람에게비교하면어려워하는 기색조차볼수가업습니다 울음 사람은 가지나을때에는머리가대단히 큰폐로도 난산의 한원인이되여잇습니다 아이지만 골반이 변화하야 아이나키가어렵게되엿다고가 떠듭니다。

우리의뇌는 잘발달되여잇서 여러가지훌륭한일을하나 하는데 여반면에 취각(嗅覺)과미각(味覺) 매우 빈약합니다 개와가티 우리가냄새를맛흘수는 도저히업습니다

그리고 복부(腹部)나 음부(陰部)는 넘우나방비가약합니다 우리배속에도 여러가지중요한기관이들어잇건만。 그런데도불구하고 배는 배가죽과 지방과 근육으로되여잇슬뿐이요 외부에서드려오는장해를막기에는 넘우나 약합니다。 여지에잇서서는 특히 지방(脂肪)이 만키는하지만 하여간 복부는 약한것이사실입니다。

그러고 우리생식기관 엇덥의미에잇서서 가장 중요한것이라고 생각하지안흘수업는것인데 외부에 로출되여잇서서 매우위험한상태에 노혀잇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두발로 서서거러단이게된 까닭일것입니다。 다른네발가진동물들은 확실히 사람보다 안전한위치에엇는것을알수잇슬것입니다。 이가려 위치가 안전치못한까닭으로 인하야 늘 신문지를 어지럽게하는 성에관한불상사가 이러나는지도 모르겟습니다。

내장도 넘어나 약한것으로써후복부(後腹部)에 달녀잇슬뿐입니다。 그런고로 때때로 신장(腎)이나 비장(脾)증대한 자궁자리에 잇지안코 배속을 이리저리로 이동하야 보통과는 다른자리에 가잇게되는수가 잇습니다。 이것을 각각 유주신(遊走腎)、유주비(遊走脾)라고합니다。

그러고 본래부터 약한사람은 위나 장이 아래로처저 위장하수증(胃腸下垂症)이되며 따라서 소화불량증등에 걸니게 되는것입니다。

가슴과 복부사이에는 횡격막(橫膈膜)이라는 근육으로된 막이잇서 두사이를막고 잇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서서단이기에는 넘우나 약한것입니다

요사히 세계올림픽이니 무슨경기대회니하야 벽머리를논ㅎ 누가멧초에 뛰엿느니 또 수영대회에서 누가 세계기록을 지엇느니하고 신문지 기타에 대서특서하야 굉장히 떠들며 한개의 영웅으로써 대우하는 세상이 되엿습니다만 다른네발가진 즘생에비할때 개 가튼것하고 뛰기내기를한다면 사람은 어림도업슬것입니다。 사람이 물우에서헤염을칠수잇게되라면 만흔 연습을싸어야합니다。

그러나 다른동물에잇서서는、흔히 나서부터 헤염칠줄 아는것입니다。 이것도아마 사람이네발로부터、두발이된까닭이 안인가합니다。 다른동생에비하야、사람은몸에털(毛)이대단히적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일입니다。 겨울이되여도、다른동물들은、사람가리 외투도안입고、솜옷도 안입드래도 넉넉히 사려갈수잇습니다 털이 만키까닭입니다、그러나 사람은 털이 업서진까닭으로 인하야서、불경제적인、의복을입지안을수 업섯슬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반대하시는이가 만흘것입니다。 옷을곱게입으로써、아름답게도할수잇고、또 사람에게는 복그려워하는 마음이잇지안으냐고? 털이업서저 옷을 입게되엿이 불경제라고하는、그런 몰상식한 말이 어디잇느냐고? 물론 그럿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할바는、우리가 옷을안입게되엿드라면、옷이외에도 얼마든지 미적요소를 차즐만 한곳도잇섯슬것이 안이엿슬가요?

十一月四日 (月)

◇午後六時童話 毛麒允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尹行重
◇同七時三〇分 博物週間 史蹟과博物 黃義敦
◇同八時 獨唱 一、聖譚曲「메시아」中에서…헨델作曲 깃버해라시몬의딸들아 二、가을…프란스作曲 三、솔베이그의노래…그리ー그作曲 四、어머님…朴泰嵩作曲 五、歌劇「椿姬」中에서…베르듸作曲 아! 그대엿든가 피아노伴奏 朴景嬉 金永煥
◇同八時三〇分 成主푸리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十一月五日 (火)

◇午後零時五分 日用時報 [illegible]
一、[illegible] 二、三랑도도리 三、굿거리 四、打鈴 五、[illegible] 七、[illegible]
◇同三時一五分 [illegible] 외가지가지 (二) 金庠基
◇同六時 어린이時間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illegible] 金台俊
◇同八時 流行歌 一、바리지마세요… [illegible] 二、[illegible] 三、그리운[illegible] 四、[illegible]이가씨 五、[illegible] 六、[illegible] 七、[illegible]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金允植

曆

十一月五日(火) 舊十月初十日(大) 乙酉·水·箕·閉
●立冬八日(舊月十二日)
●小雪二十三日(舊月廿八日)

短篇小說 繁榮記【3】

金起林 作 安碩柱 畫

「이놈아 그래 니 예비두모르게 그랫니?」

창호는 복바치는 분울아페게 쏘드려고 눈을 부르떳다。 사실 미안한드시 입을 오무린 아들의 얼굴에 최후두집어씨우자니 너무 억울하다。 그는 그마인안에도는 처괴한게 말겨 살켜버렷다。

「하기는 잘햇다。 아모렴 병수잇니。 삼볼이를보니 배회사급사루잇다가두 사무원두 되드라」

어려서는 일본집신부룸을 하다가 필경으로에는 소방조두가 된 순성상회주인이라든지 소사된 물을 이르켜서 도평의까지도 김도평의라든지 그런한 일지전만 기억에 불러보므로 그는 형크러저가는 마음을 스스로 수습하려고애썻다。

「내새끼사 그저 애비를 달마서총명하지비」

「흥 그아 외편으 달마서 려치 비아비르 달로왓음이?」

「그래두 애비르 달맛지비 까짓외편이 다무시게냐? 그 래벌은 얼마라디?」

「팔원의 준답데」

「팽이쳐이다。 보통핵교좋어제그 제맛추구 그만하문—」

에이구 벌서 아들신세를 업게됏숭이 어찌겟소。」

술병을 대접두께에 기우려든 창호는 핑옷는다。

「다 팔재조와서 그렁치」

마친 바깨서 「리상」하는소리가 들렷다。 안해는 남편의귀에 입을 가저다대고 속삭인다「다나까생이오」

창호는 벌컥 이러나 바끄로 간다。 방안으로 손님을 다리고 드러오는 기척이 들린다。 몇마디 주고밧는인사가 끗나드니아 니다까가「다나까상」은 그탈을 끄집어낸다。 여자의 얼굴은 삼시간에 벌거케 다러온다。 가슴파이 항부로 뛰기시작한다。

「집이나 파라하겟소?」

여자는 숫가락을 든체 발로미레 밧싹 다아안는다。

「앙이 팔겟소」

「그로지마오。 항…에 심원…」

「앙이파오」

「십오원?」

「앙이파오」

「그롬 이십원」

「앙이파오」

「첫 조찌앙어 안파라」

「우림 앙이파오。 한원에 백원이라두 앙이파오」

「오채서?」

「곰세 그런일이 잇소」

여자의손가락에서 숫가락을내고 자리바닥에 떨어진다

손님을보내고 방으로 도라온창호는 갑작이 안해가 도라안저서 설거지를 시작한것을보고 잠깐 당황햇다。 웽겅 안해는 일부러 숫가락과 놋그릇을 서로 마조처서 쇠소리가 온정주에 왁자그르하다。 헐덕이는안해의 급한 숨소리조차들려온다。

남편이방수까랑을다시장여섯슬때는 안해의얼은 필경 러지고야마렷다。

「밥것어시ー비러나먹엇지비ー남은 조타구팔구 초에 드러안는다는데ーー그조훈 시세에 앙이팔구 어찌잔할인구ーー」

밥상모를 한번미러부신다。 상위에 거지반 비여가든 그릇들이 일제히 왕운다。

남편은 안해의눈찰의 까닭을그제야 아럿다。 그는 수까랑으로 「엑 망할년그래부모가물려준 선영재물이라구 집한채하구 집리이한상시심햇되는거 마저파러먹지 못해그러니?」

이윽고 남편의발길이 상울차서 엎질러 노앗다。 조앙라리미러서고양이가 뛰여나와서 쏘다진 국그릇에 달려붓는다。 또시 착한것을본 영수는 어느새 술그머니 밖그로 빠저나와버렷다

독바로 남편에게로 되라안저서 악을쓰며 바락바락 지르는 안해의 소리를 문소리와 함께 다더두고 그는 뚝안으로 나와버렷다。 커ー다라케 가래침을 하나 밧고는 한길에 나섯다마침 남은 사실권을 마저안해를 주지아니한것을 다행으로 생각햇다。

북에서 나오는 열시차가 방금 길게 고동을 리우면서 장뒤철교를 건너나 보다。 망할것。 갑작이 놈어 새부자가 되엿기로서니 그게 무슨일에 네가 훗분할 까닭이 되느냐? 안해라면시 놈의 사람이야。 내 선영의 유업이 아까울도 모르는것인!보지。 그러한 생각에 이끌려가는 사히에 그는 어느새거리의 번잡한 사람들의 물결속에 휘쌓여 버렷다。 얼마 모자도 아쓴 얼굴들이 번들번들한 마빠을 치켜들고 거리를 나려마가당 처마다 유쾌한듯한 얼굴이당 어련아히들은 벌서 어되서 한손에 조히기빨를 어더들고 ㅁ다시피 달려나려가기도한다。

再び來る!

クラブ(구라부)化粧品 愛用者御招待

待望のクラブ(구라부)大演藝會 豪華陣

全朝鮮의愛用者各位에 구라부를再度贈呈할 絢爛豪華巨彈!

時 十一月十六日(夜一回)晝一時開演 十七日 十八日(晝夜二回)夜六時開演

所 京城府 京城劇場

보라! 굉장한 이豪華로운스타프를!!

演歌告別出演 新民踊……花園歌子 若草葉奈子 島田政子

滿洲國唯一のテナー 獨唱……李勝和

伴奏(アコージョン)……岡本富久

無器樂の珍演藝 漫談と聲帶漫藝……河村九郞

練磨の妙・驚嘆の至藝 曲技……東富士夫 都ノ花仙 東富士奴

漫才コンクール選手 スケッチ漫才……波多野榮一 平凡平

行演歌家元 流行歌物語……添田さつき

武正流 剣舞……平野星水 高橋星花嬢 進士星城

‖招待方法‖

구라부美身크림、구라부齒磨、구라부白粉、구라부乳液、구라부포마ー드 其他구라부化粧品은 무엇이나 五十錢以上(數個組合하여도조라)사시는분에 빠짐업시 구라부大演藝會招待券一枚進呈합니다

十一月

十三日 群山府 公會堂(晝夜二回)

十四日 大田府 警心館(夜一回)

十五日 仁川府 公會堂(夜一回)

十九日 元山府 遊樂館(夜一回)

二十日 咸興府 眞砂館(晝夜二回)

島田歌子 添田さつき 高橋星花 平凡平 河村九郞 若草葉奈子 岡本富久 李勝和 波多野榮一 花園歌子

江都雜記……(九)

江都의 人物

霞山 李殷相

江都를 遊覽하는사람으로 仙源金公의 殉節碑를보고 古城을보고 古蹟地를 지나면은, 江都에서난 사람, 江都에 살던사람으로 우리가 果然오래記憶하고 잇서야할 사람이누구엿던가하는것을 생각하게될것입니다。

[illegible]의詩人으로 (東)方大家의稱을받던 白雲居士 李奎報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죽어 骨肉조차 이곳흙에 무첫스니 可謂江都의詩人이라할것이며, 저麗代의人, 文武金君의 石村居士李佑도 그가 方外의벗으로삼앗던名僧 鳥影도人과더불어 江都의 이출수업는 사람인것입니다。

靈本의 牧隱先生은 少年에이곳으로와華蓋山中에서 讀書하엿고, 壬亂적 倡義將軍은 晩年을 여기와 閑寂에서詩하엿스니 이도한 江都와함께記憶될 人物입니다。

世紛을謝하고서 五流川에 卜宅하야逍遙自適한 詩人은 儒石權[illegible]엿거니와, 鄭松江은 여기와 寓[illegible]하며 무슨[illegible]를 들어보지오。

仙源相公金尙容은 이미말하엿거니와 丙子亂當時의 三學士中에 [illegible]를 餘하고서 尹集과洪翼漢은 다여기

(居) 하던이니 또한어찌偶然한 일로만 볼것입니까。

이밖게도 鄭蘊谷가튼學者며李[illegible]가튼文豪와 마흔人物이서아를수가 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이미나타난 사람, 세상에 이미 盛名노픈사람들이매 그들의이름은 오늘내붓을 기다릴것이 업는줄압니다。그러합니다。그들이 다 이江都의 歷史的人物이 아닌배아니오 또 凡常平凡한 人物들이 업도 論이지만 나는 여기서 그들보담도 江都의人物로 생각하는 사람이 잇습니다。

그들가티 이름난이도 아니오 또그들가티 國家에 重職을 띄것더이도 아닌채로埋沒한 草野에서 이름업시 살다지진

(婦) 女들에 사람을 자랑하고싶습니다。高麗三別抄의亂에 將軍 玄文奕의妻가矢石의비발속에 男便과 가티잇서 한살을쏘아주다가 마츰내將軍이 [illegible]새 二女와함께 가티江中에 [illegible]하엿으니 [illegible] 殉義한 婦女들이文籍에 記錄된者만도 五十餘名을 算한다는것입니다。

그五十餘名婦女의 殉義事蹟을 여기一一히 적을수는 업거니와혹은 노픈언덕에서 떨어저 그목숨을 끈코 혹은 몸을 물에 던지어 最後를 맷던 이곳 士人婦女들의 殉節事實에도 우리의 耳目은 놀라지 안흘수가 업지마는, 그보담도 大叔伴, 古瀛介[illegible] 分介가튼 婢子들의 丙亂殉死는 더욱더 記憶하고십습니다。

[illegible] 그녀들 婦女婢子의 殉節이

(歷) 史的大事實된것도업고 [illegible]에 끼친바 무슨 [illegible]것도 업게지마는 『깨끗한 피로 [illegible] 마치는 高尙한 [illegible]이 그때만하여도 朝鮮사람의 자랑할點으로, 남아잇던줄을 알게하는 好適한 資料이기때문에 나는 구태여 이름들난 詩人文客들 다제처노코 이름업시 殉死한 婦女들을 손꼽아 江都의 人物이라 말하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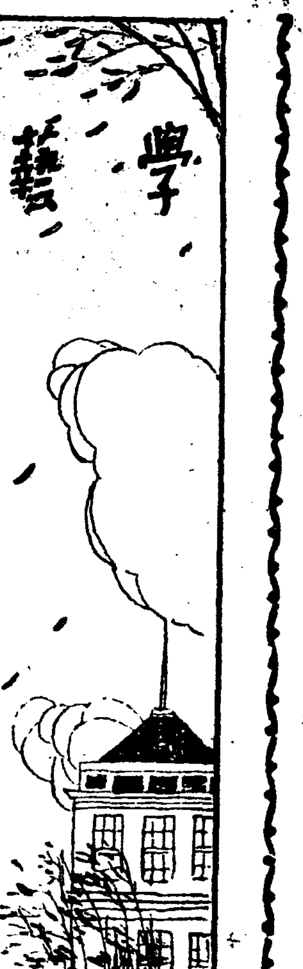
이러한 事實이 어찌 江都곳에만 잇겟습니까。東西古今 어느 民族의 歷史에서든지 後世에 그이름이 남고 안남고 들나고 안들나는 그裏面을 뒤집어보면 얼마나 큰義人 큰義士들이 無聞에 부처지고말앗던지를 몰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世上이 널리 알지못하고 또 알려고도 아니하는 그러한 婦女婢子들을 들어 이룬난

(殉) 義의 士에 조금도 遜色업는이들로記憶하고저하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名字조차 記錄되지아니한者로 날몰래 義롭게죽은 만흔義魂들까지 노피어 思慕하는것입니다。

要건대 江都의歷史 또는 朝鮮의歷史 乃至人類의 歷史에서 罪업시살고 義롭게살다가 罪업시죽고 義롭게죽은者들――그들의義氣를사랑하고 그들의 精神을崇慕하고저하는것이 나의 眞正한생각입니다。――(續)



不安의哲學者「하이데겔」

—그 現代的意義와限界—

❷ 朴致祐

二、하이데겔哲學의 現代的意義

『하이데겔』哲學이가지는바 가장 重要한 現代的意義 또는現實的根據는 그의 思想이 不安과 虛無에서 헤매이는 오늘의 所謂 絕望的生存들의 苦惱相을 予先 現象的으로 그려내고 잇슴뿐만아니라 一步를 나아가 이러한

(不) 安과 虛無를 들코 그리로 부터 빠저나올 그러한 새로운 血路를 提示하는듯이 뵈여지는點에잇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血路打開에 關한 獨特한 手法을 뵈여주는듯이 뵈인다는點에 잇다는 말이다。이點은 적어도 하이데겔硏究에잇서서는 特히 看過되여서는안되는點인것이니 대저 그의 思想이 뵈여주는 가장큰魅力은 그가『不安』『無』等의 諸述語에다 그저 哲學的意味만을부처서 짓거리고잇는點에 잇는것이아니라 이러한『不安』『無』等을通하야 다시금 새로히 自我와 및 世界에關한 深刻한 覺悟를 어더보려고 힘쓰고잇는點에 숨어잇는것이기때문이다。이點은『쉐스토프』에잇서서도 同一하다 이르는바『쉐스토프的魅力』이라 는者는 엇던 우리 文藝批評家의말과가티 거저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魅精神的『零번』들의 悲慘한靈을 그려내곳에잇는것은 決코아니다。그의 所謂魅力이란 이러한 悲慘과 絕望을 通하야 다시한번 새로운

(自) 我와 새로운『現實』새로운『眞實』을 把握하여보려고 애를쓰고잇는 그點에잇는것이다 死를 正面으로 凝視함에依하야 絕望의 障壁에몸을 드려부닥침으로 말미암아、또는『無』의深淵을 바라보고 突進함으로 말미암아――다시 말하면 絕望的인 現實(人間과 世界)을 向하야 이것을『悲劇的으로 肯定』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覺悟를 어더보려는 그러한 積極的인 意味、即『無로부터의 創造』라는 意味를 가젓다는 이 點을 看過한 解說이 잇다면, 아저런解說? 은『쉐스토프』에關한限 完全히 零이다『하이데겔』에잇서도 또한 人間存在의 自己覺悟이라던지 또는存在者의 全體로서의 世界에 對한 一種神的인 諦觀(諦觀)이라던지 이러한結論을 끄집어내는點에잇서서는 兩者의 技術上 또는體系上相異는 잇슬망정 根本的인點에잇서서는『쉐스토프』와 다를배업다。後에 좀더仔細히 說明하려니와『하이데겔』도 또한 사람은 自身이 가지는바 宿命的인 有限性(死)를깁히覺悟함이업시는 참된自我를 차즐수업다고 말하는것이라든지 또는

(全) 體로 서의 存在者의 世界가 가지는바 넘자못할 無常과 虛無를 痛切히 깨다름이업시는 이에對한 究局的인 把握을 어들수업다는 意味의말을 力說하는點이라든지 이러한點으로본다면『쉐스토프』와 全然同一하다고할수잇다 一種의 神的諦觀이라고나할가 엇쨋든이러한態度는 時節이 時節인것만큼 魅力잇는敎說이아닐수업다。우리는 이러한絕望的諦觀的인 人間觀(勿論그의積極的意味는 承認함)에對한 峻烈한 檢討를 이저서는아니될것은 勿論이나 이와同時에 檢討의 對象이될 이들 思想內容에 對한 正當한 內在的理解도 또한輕忽히녀겨서는 아니된다는것을 이저서는 아니된다。이러한 意味에서『하이데겔』思想의 內容紹介에 드려가기前에 몃마듸 미리 적어본것이다 以下簡單한 紹介兼 이야기 해볼作定이나 詳細한 內容을 紹介하는것보다도 먼저 思想史的 背景부터 들추어 드려가는便이 效果잇는 方法가티생각됨으로 이러한길을 取해보기로한다

『하이데겔』哲學(이哲學이 그의 思想的營養을 供給바든)여러

(先) 輩思想과의 關係에對하서는 이미『막스미리안、벡크』『오스카、벡겔』等파울、덴겔』等여러 哲學者의손에 依하야 詳細한 說明이 되여잇다。各各조금식 다른點도 업지는안치만 대체로보아 그의哲學은丁抹의 詩人哲學者『키에르케골』의 實存思想을基底로삼고 이를『벨그송』特히『딜타이』의 生의 哲學的方法과『훗설』의 現象學的 解釋學的方法에依하야 料理해서 一層發展擴大된 形態로서『파르메니데스』以來의 傳統的存在學을 大成식힌것이라고 보는便이 公平된理解일것갓다『벡크』와 가튼사람은이外에도 『맑스』와『니체』의 人間觀의 影響도『헨겔』이나『푸파이펠』가튼사람은 한거름더나가서 『프로이드』一派의精神分析學的思想의 적지안흔 影響을 指摘하고잇스나 내생각으로는『하이데겔哲學』이 說使 누구의影響을 밟벗든지間에 『方法』이나『體系』나『敍述技巧』等의 問題를 떠나서 그의思想의實容의 核心을 形成한다고 미더지는그의 人間觀이 問題되는限에서는 아모리보아도 다른 누구보다도 『키에르케골』의 實存思想으로부터 바든

(影) 響이 가장 決定的이 아닌가한다。이러한意味에서나는以下그의 思想을 存在學的側面이나 解釋學的 側面이나 現象學的側面에서 보담도 더한層 實存哲學的側面에서 보아가기로한다 即 이러한『途程』은 事實 또한『하이데겔』哲學解說에關한限)述者의 敍述이나 讀者의 理解에서나 兩者共히(一方)大誤를 術上煩雜을避하면서(他方) 犯함이업시 思想實容의 核心을 잡을수잇는 가장 效果的인길도되는것이다。『하이데겔』哲學에잇서서 가장 重要한 部分을 形成함에도 不拘하고 다른側面에比하야 特別한 專門敎養을 치안코도 比較的理解하기쉬운部分이 곳 實存哲學的側面 即人間學的側面이라고 생각됨으로써이다。

나는 以下比較的 自由로운立場에서 될수잇는대로 알기쉽게 그의思想에對한 論述을 이러한『途程』에서 進展식혀볼까한다

隨筆

汽笛의生誕百年 (下)

金晉燮

假令 이 林檎은 그것이 서울서된것이 아니라면 어떠케해서 이곳에까지 올수잇섯슬까? 하는 偶然한 端緒를 가지고 이 글을 始作하는것을 讀者諸氏는 容然하라。웨냐하면 事實에 잇서서 요사이 만흔 사람은 그러케도 떠들고잇서서 요사이 만흔 사람은 그러케도 떠들고 즐기든 旅行을 完全이 닛고 或은 여름의 旅行으로부터 도라와서 인저는 門을 꽉 닷고 房안 에 드러안저 이 林檎이 실려온

(汽車) 야의 存在가튼것은 아생각도 하지안흘 作定으로 잇는것을 나는 잘알고잇슴에도 不拘하고 나는 여기 時節히 諸君의汽車에對한 同想을이르켜야만할 一의必要를가지고잇는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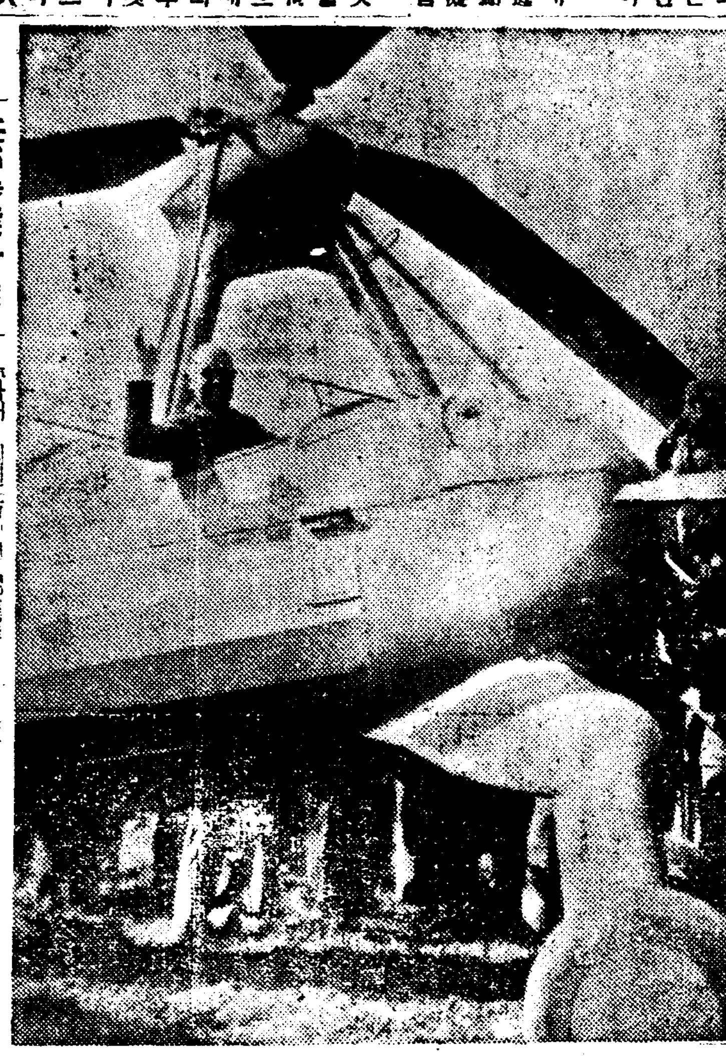
그必要는 다름아니라 올해는汽車가아니라 汽車의 發備의汽笛이 世界의 坊坊谷谷을 默默히疾走함을 그치고 그異樣한부르지즘을가지고 人類의 가슴에 큰感動을 자아내기 始作한지 正히百年이되는해라는것을 諸君에게 簡單通告하랴함에잇다。그런데 그올해라는올해도 인저는 깁허가는겨울이니 어듸가 얼마남지 안엇슴이 分明하다。果然世上은 이러케 無情하여도 조흘까 심지어 鐵道從業者員조차 汽笛의百年祭를擧行할 꿈도 안꾸고잇는듯보이니 엇지서 이偉大한『汽笛一聲』이 假令『비크토르·유고ー』의一篇의詩 一篇의小說만도못하다하고 君은 말할수잇슨고?

特히 가을밤에 房안에 외로히 누엇스면 멀니서間或들여오는 汽笛의소리 애틋끈코 腸을 애우는듯한

(旅愁) 를 이르켜사이렌과 에는 가장子者인 汽笛의 詩美를 생각함이 切切하다。普通時에는 汽車따위 꿈에도생각치안컨마는 문득이 소리드르면 갑작이 멀니멀니다고 갈힘이잇슨 自己가 무엇때문엔지 깜박닛고 汽車를 노처버린듯한 놀내임과 어글함이 恒常가슴을 흔들블잇기는데 이詩的情緖는 到底히 暫時사이에는 그차랴고는 하지안는다。勿論이것은 호흡로 나만의變觀, 나만의 憧憬이아닐것이다。離別과 會合의 永遠한 詩를 世上에노래하며 다릅집치는 이汽笛이 會者必離의 運命을 진 모든 사람의마음에 얼마나만흔슬픔과 얼마나 만흔깁뿜을 합부로 자아냇스며 그러므로서 事實에잇서서 만흔詩가 이것을 노래하고 만흔小說이 이것을 그리고 잇는것을 생각하면 汽笛이 나날이 作用하고잇는바 感動에 參與치안는사람이란 거의잇슬수업다는것을 사람은 否定치못할터인까닭이다。그가한번입을 열매 世上은 完全히 눈물이되고世上은 完全히 웃음이된다――그러한데 웨大體 사람들은 이意味深長한

(世界) 의 最大音樂家이요 世界의 最大詩人인 汽笛에 對하야 그거룩한 百年의 歷史를 紀念하랴하지 안는것인가 오늘에잇서서는 벌서 汽笛을 떠나서 汽車를 생각할수업슴은 두말할것이업다 그러나 汽車에 對하야 重大한 關性이 되여잇는 이機關車의 偉大한 樂士는 汽車와가티 生誕된者가아니다。이제로부터百年前인 一八三五年에 비로소 이新式의利器가 一般으로 世人의 注目을 끌을때따라 날로 增加하는 가는速度가 人畜을 傷害함이增大하여가는 危險을 防止키 爲하야 英國『워링톤』所作이라던『商會』는 實로 最初의 蒸氣汽笛을 機關車에 裝設하게되던것이다。그前으로말하면 小型의 汽車는 地方의이곳저곳을 甚히 危殆스럽게彷徨하면서 交叉路點에 近接할 適當에는 機關夫가 號角을부는程度의 警戒를 할수잇슴에不過하엿든것이다。그러므로自然 어두운때라든가 또는 먼距離에서는 그것이 馬車인지 汽車인지 辨別할 道理가업서 무엇보담도

(速力) 은빠른汽車가저질고다니는 災難은 가장만햇다 特히 一八三三年에 英國의『라이세스터』에서『스웬닝통』을 來往하고잇는 어떤列車가 鷄卵을滿載하고 進行中에잇든 큰馬車와衝突함으로 依하야 商會主에게미친 損害額은 到底히 默過할 程度의 것이아니엇다。여기서 그는 救濟의길을 생각치안흘수 업섯든것이니 號角을 蒸氣로 불수잇게하는 思想은 드듸여 그에게 오고마럿다。그後에 또三年의 星霜을 經過하야 비로소 우리가 現在에 듯고잇는『정작汽笛』은 노래하기 始作한것이다。(完)



一無翼飛行機一 『아버ー딘』인市에서 開催된 [illegible]에 發表된 無翼飛行機。發明者는『하리·우ー드링』(機上)이나 이飛行機는 兩翼이업슴따름이고 다른構造는 通常飛行機와 조금도 다름이업다。

張赫宙君에게 보내는公開狀

❷ 文壇페스트菌論爭後感

金文輯

昭和七年三月이엿던가『쩌ー나리즘』을 떠나고 研究室의一學徒의態度를 持續하고잇든내가 先輩와 態意에이이지못하야 周圍의 親近한 新人作家十餘人을 糾合하야(Roman)이란文學雜誌를 創刊한때엿다。創刊號의 合評會가 文壇某氏宅『사롱』에서 열니게되낫밥 그날밥 나는先約이잇다든 무슨會合이 銀座에서잇섯기때문에 責任者임에도不拘하고 合評會席에는 第一늣게出席하엿다 가서보니 (Roman)의 合評은 끗낫는지 무슨이야기로『사롱』의 空氣는 자못異常도하기에『무슨일이냐?』하고 무럿더니 한친구의손을것처 그집『마담』에게 葉書를한장바덧다。그때야보니 그것은張赫宙君으로부터 나에게온葉書엿다。이는十餘日前 君의改造當選作發表를보고 내가祝電을친데對한 答이엿는대 그때 나의住所를 몰은君은 當時나와 親分이잇슴을안 前記某氏의『氣付』로보낸편지이엿다 이편지로因해서 異常한 空氣가일루어엇다는것은 그葉書가 그때改造社의 年中行事여든 懸賞創作의當選作家인 朝鮮靑年이 오랫동안東京서 日本文學과 文化史를 研究하고잇섯든 다른한 朝鮮靑年에게로온 書信이엿슴으로가안이고實로、其裏面의 內容으로서이엿다

공교로히독고선을조하하는그들文人들이 볼수잇게스리 葉書로한 이書信은 世智에長한君으로서는 一大의失策이엇슴을 그後君은 痛感한模樣갓기에 나는 내가뜻하지안코 偶然히 公開된 그 合評會席外에는 그편지를 接受以後아직도 다른데公開한일이업스나 至今이글의 必要로그편지의 첫줄한줄만을 引用치아을수업스니 君은 諒解하기를바란다。

――『事ら君の御指導と志とに依つて意外にもわれが當選はしたものゝ』云云

이것이다。나는이것이 내자랑이 아니라 立場이 立場이니만치 도로혀 나의弱點도 될나면될수잇슴을몰르는바는 안이지만 事實 나는 君의 말과가티 君을 文學的으로 또는 語學的으로 十年前 高校時代부터 君이 當選할때까지 『그외所謂「唯一の先輩」として』互相研究的으로 指導하여도왓고 末及하나마 힘도되여왓든것이다。

누가알랴、君의 當選作『餓鬼道』는 그全部를 君의要請에依하내야 가스사로 내집과는 不過二百米距離밧게 안되는 大郎南山町 君의집一室에서 君을마조안저노코 어지러게스리 朱筆改作한것이다。(본래는『餓鬼道地獄』이란 題目의稚拙한 君作인것을 건저題目부터『餓鬼道』로 곳치고 本文의 第一行부터 最後의 一行까지 行行句句로 推敲한것은 勿論、全體의 構成이며 人物의動態『스토리』의 進行 會話 地方色其他 一切文學的敎養을 기울너充分히 說明한後 手巾으로 땀을씻스면서

『――まあこの程度で 淸書して試しに送って見るのもいゝが併し當選なんて當てにしちゃ君も甘いてもんだよ!』

하니 君은朗答으로

『勿論たとも!萬一當つたら君にして罰が當るからな……』

하고 시원스리 말하면서 君一流의狡猾한 微笑를 띄운것이엿다。 그리고 얼마지난後 나는 다시 東京으로 가것이데(昭和六年十一月)大邱驛에서 송송한나를 餞送한다 한친구가 곳 君이엇다。

그作品――내가 끔찍이의사마귀까지 다아는그『餓鬼道』가『意外にも』一等은 아니나마 首席으로 當選되엿던데 나는 日本橋通 어떤店頭에서 君의當選을賓物로보자 無批判的으로것버서마치手中에 도하푼이업섯더나는 나의性質이로마린시즘에 酔하야 신엇든洋靴를 一金五十錢에 典當에너어서 맨발로祝電을 처려 萬歲橋附近 某分局으로 뛰여가다가 交番巡査에 不審訊問까지 當한일이 잇섯다。

如何튼『君に對して罰が當るからな…』한 그君이 當選바람에改造社 『쩌ー나리즘』의 『朝鮮人作家』란 가여운『로보트』로膨大가되以來는 日本말로『手の裏を返すやうに』급작히도 나에게 對한 態度가變하야 文字그대로의『劣情者』에서『惡劣漢』으로 實踐化한것은 勿論이요 自然 또文壇涉世를 意識하자 君의ㅣ 더구나 文人的敎養이 絕無한君의 本性이엿것마는 一種 獨特한 『페스트』作用을 露骨하게도 發顯하기始作하는 同時에 그의업골을 보이는곳마다 人的不快感을늣기게되엿스니 一例를 끄면 現東京文壇에서 最盛의『그룹』인『文學界』同人、그中에도 評論에第一者인 小林秀雄가튼 純藝術家氣質의 人物에게는 그作品은勿論 人間的으로도 公然하게唾棄를맛엇고 藝는 生命으로삼는 一般作家들은 全然되어주지를 안코잇는것이다。

英語講習院

泰和女子館內로移院

延專教授『스파이델』氏外十數名의 英米人이 指導하며 主로『스피ー킹』『히어링』을 敎授하는 英語講習院은 오래동안西大門町二丁目피어슨聖經學院內에잇다가 今番仁寺洞泰和女子館內로 옴기고 男女新入學을 만히 募集하리라는데 十一月四日부터 開講하리라한다 時間은 午後七時부터 同九時까지 每週三日(月水金)授業料 月二圓、入學金一圓。英語科外에英文타이피스트科도잇다

杜翁歿後二十五週年記念

『모스크바』國立杜翁博物館의準備

【모스크바發聯合郵信】十一月卄日은 文豪『톨스토이』翁의 逝後卄五周年忌日임으로『싸베ー트』國內에서는 目下全國的으로 祭典을準備하는中이다 그中에『톨스토이』에關한 世界의 第一豊富하고權威잇는 資料를 자랑하는『모스크바』의『톨스토이』國立博物館에서는 이機會에 資料의 大展覽會와 其他各種의 記念式開催에對한 準備에 奔忙中이다

國立博物館은 最初『톨스토이』翁의 令嬢『오보렌스키』가 寄贈한 資料를 基本으로 成立된것인데이 資料는『톨스토이』翁의 論文各種의 抄本及 校正刷本 十四冊의 『노ー트·북』『로망·로ー랑』을 비롯해서 多數의 人士에게보낸 片紙抄本으로부터 成立되엿다 其 그리고 一九二六年에『톨스토이』의 親友『체르트코프』가 그의 大한『코레숀』을 全部博物館에寄贈햇다『復活』『크로잇에르쏘나다』等의 手稿、哲學、神學上의 論文等等 總計七萬四千枚의 原稿 一八八四年의 日記、一九〇四年으로부터 一九一〇年에 至하기까지의 數種의『노ー트·북』『체르토코프』에게부친 九百十七通의 書翰、友人其他에게보낸 一萬五千通의 書翰等이 主要한內容이 되여잇다

一九二七年에는『톨스토이』翁의 命息이『톨스토이』로부터 八部의 手稿、一九〇〇年부터 一九一〇年十一月三日에 至한 七冊의日記가 寄贈되엿다。

다시 一八六〇年부터 一九一〇年間『톨스토이』에게 露西亞各地로부터온 片紙約一萬通이 最近博物館의 所藏으로 되엿다。

其他 『톨스토이』及 『톨스토이』敎會에 對한 壓迫을 記錄한 各種裁判所行政機關의 書類、『톨스토이』의 [illegible] 未來의 手稿[illegible]은 [illegible] 것이다。

그리고 『톨스토이』傳記[illegible]에서는 『톨스토이』의 [illegible]을 모아 [illegible] 하려고하는터이라한다。

黑風 【163】

韓龍雲 作

金熊超 畫

결혼 6

왕한의 여관에서 나와서 자기의집으로 도러가는 창순은 스스로 생각이 만하야서 모든 번민을 이길수가 업섯다 왕한에게서 보든 녀자의사진은 모든 점으로 보아서 왕한의 애인인것이 틀님이업고 책상설합에 너턴 편지는 그녀자와 왕내하는 연애편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하얏다 그러타면 왕한은 암의다른애인을 두고서 다시 일시적 풍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라는것이 아닌가 만일 정말에 다른 녀자를 사랑한일이 잇더래도 그녀자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기왕에 청산한 녀자와 편지래왕을 할 필요가 업는것이오 어떠한 경우에 편지래왕을할수가 잇더래도 그녀자의 사진을 내어노코 보기까지에는 아직도 끈흘수업는 사정이 잇는것이 아닌가 그러타면 왕한은 자기를 순진하게 사랑하는것이 아닐뿐아니라 아직까지 사랑의 기로(岐路)에서서 사랑의 결과가 장차 어느편으로 기우려질는지 모르는것이 아닌가 만일 왕한이가 사랑에대하야 그러케 순일하지 못하다면 그녀자 이외에도 사랑하는 녀자가 얼마든지 잇슬수가 잇는것이다 그러면 왕한의 인물됨은 다른방면에는 모르나 사랑에 대하야는 잡되고 실업슨 사람이오 한곳 선의(善意)로 해석한대도한개의 풍류랑에 지나지 안는것이다 그러타면 상당한 녀자로부터 사랑을 바들만한 자격은업는것이다 그러나 왕한의 모든 점으로 보아서 한편으로 호방한 남자가 아닌것은 아니나그 성격의 대부분이 진치하고 정직하야서 조금이라도 란잡하고 사곡한것을 발견할수가 업는데 그러면 왕한은 과연 이중인격(二重人格)을 가진 사람일까혹은 왕한의말과가치 미국가튼데서는 남녀의 교제가 해방되야서 남녀간에 가티 여행하고 가티사진바는것을 예사로 아라서 조금도 다른 의미가 업는것이가 그러타면 왕한의 거기에대한태도와 수작이 [illegible]하야서 조금도 어색하고 구차한 구석이업슬터인대 아모리 보아도 그러치못한것이 무슨까닭이며 도편지는 무슨 편지일까 그입에대한 열쇠는 평평 그편지의 내용에 잇슬것이다 그러면 조금더무러서 확실히 알고 올것을 너무 경솔히 나왓는가 그러치만 아모리 사랑하는 새이라할지라도 남의 사서를 보자고할수도 업는일이오 말하지 안는것을 억지로 듯겟다고 할수도 업는일이 아닌가

여러가지로 생각하는 창순은 한편으로만 생각하는것이 너무도 괴로워서 생각을 이리도 뒤치고 저리도 뒤처보앗스나 분명한 해결을 엇지못하고 생각을 따라서 번민만 더할뿐이엇다

창순은 괴롭고 민망한 기운을 펴기위하야 머리를 들고 공중을 처다보앗다 개인하늘의 한달빛이 자기의 가슴을 뚫코 마음의 깁흔곳까지 비처주는듯 하얏스나 마침내 자기의 번민을 싯처서 명랑하게 하야주지는 못하얏다 그러한 생각이 계속하는 동안 창순은 자기의 집에 이르럿다 자기를 마저주는 외로운 등잔이 예업시 처량한듯 하얏다

창순은 등잔을 향하야 안저 아까하든 생각을 되푸리하다가 그것이 쓸대업는 공상이란는것을 스스로 책망하고 자리에 누어서 억지로 눈을감고 잠을청하얏다 그러나 잠이란는것은 예로부터 잠을청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오는것이 아니엇다 그리하야 창순은 눈을감으면 감을수록 눈 정신이 깨끗하고 잠을 청하면 청할수록 조름은 오지아니하얏다 그리하야 창순의 감은 눈에는 아모것도 뵈이지 아니하얏스나 왕한에게서 보든 그녀자의 사진이 역역히 뵈이고 생각하든 번민보다 잠을 청하는 고로옴이 더욱 무거웁게 가슴을눌넛다 방은 얼마나되얏는지창순은 의연히 적지아니한 괴로움을 안고잇는 아름다운 뎌 자엿다 (回數訂正하여상)

景品附大特賣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キッコーリウ醬油
깃고ー류간장

キッコーマン醬油
깃고ー만

十六立樽一樽
又는
八立罐二罐 御買上每에
ベルベット鹼石
一函(三個入)
빠짐업시드림

凶作에우는災民에 廻避道路工事賦役

長津郡內四個面에서만도 出役人夫一萬七千餘

【長津】장진군 중남면 부물리(中南面扶物里)로부터 신흥군동상면한대리(新興郡東上面漢岱里)로 통하는 소위부전고원관광회유도로(赴戰高原觀光回遊道路)총연장 일백사천 메돌의개용공사는 금년■■그전에 착공하여 래년■월까지 준공할예정인데 이에요하는 총공비 륙만원은 예상하여 그중 오만원은 부물령(扶物嶺)의 난험개척공사에 요하고 그외 일만원은 장진군(長津郡)과 신흥(新興)에는다 장진군(長津郡)에는 흉천이 ■원으로 결정되엿는바 그공사에 출역한 궁민수는 동하면(東下面)에 삼천사백인、상남면에 륙천팔십인 중남면(中南面)에 이천팔백오십오명 신남면(新南面)에 오천팔십인인 도합일만칠천사백십오명을 출역(出役)식히기로 결정하엿는데 로임은 한사람압헤 일일삼십륙전가량밧게 안되며 겸하여 장진군(長津郡)은 인부가 극히 희박함으로동하면(東下面)가튼데서는 공사현장까지 올라면 적어도수입놓요하게됨으로 결국수입절녀서 겨우 삼십륙전이라는 로임을밧게됨으로 아무리 흉작으로인하야 생활적으로 궁하다하더래도 수일간삼십륙전의 입금으로는 도저히 취어할수업고 겸하여 유람도로에 긔아를 무릅쓰고라도 부역하여야 할도리가 어데잇느냐하는 비난이 주민들사이에극히놉다고한다

지국후원으로 래시일■■■에서시장이전축하식을 거행하기로 한바 아래와 갓흔 여흥도 잇다한다

一、■■大會 十一月九日

一、■■大會 九日부터 十二日까지

一等 一人 ■■一枚 ■■■

一■ ■■一枚 現金四十圓

二等 一人 ■■一枚 ■■一枚 現金十五圓

以下 ■■■■■

一、■■■■式 十一月十二日

殺人姦夫에게 死刑을言渡

【平壤】황해도서흥군 목감면백압리(瑞興郡木甘面白岩里)림약산(林藥山)의집에 살고잇든 목수송창호(宋昌鎬)(■■)에 관한 강도살인 절도 주거침입등피고사건의 공소심은삼십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재판장으로부터사형을 판결햇다 피고는 동리신전마(■千■)의 처 문■■(文■■)와 괴정을 통하여 왓섯스나 비밀이 탄로되게되자 ■■과 만주간도로 다■■■를 하고 리배를 조■하기로되어 이정부터라압념은 서흥면 ■■리(■■里)꾸■상 ■■■■(■光■)의집에 금년사월이십오일밤중에 침입하여 ■■■■■을 ■■하여가지고 도주하려는순간에 조■■이 ■■■어나며 조치왓슴으로 ■■하여버렷다는것이라한다

大旱災地全南에 慈悲心만흔地主

作料를輕減或은宕減

【木浦】목포문재철(文在喆)씨는 월전에 이만사천원이란 큰돈을 사회사업에 회사하야 무안군(務安郡)한재민구제에 오천원 목포제이보통학교 증축비로 오천원 현안중에잇는 목포공회당신축비로 일만원 기타에사천원을 긔부한고마운일은 일반이 다아는바어니와 현재문씨는 신병으로 금강산(金剛山)에서 정양하는중 무안군도서(島嶼)방면에잇는자긔농감들에게 내시하야 소작료중수를 오늘날까지 전례업는 후한소작료를 바덤뿐아니라 흉작지에는 랑감까지하엿슴으로 한재에쏘라린 상처를가진 세농중부락에서는 일시오슴의 꽃이 피엇다한다

은 청년조각가로 일홈놉흔 문석오(文錫五)씨의 부인으로 문석오씨의 회비를 과거칠년동안이나 전담하여 성공시진 가정의주부로서 금번에 한부현회출 업생회등의 밥크로 긔념품을증정키로 되엿다한다

◇寫眞 高義淳 女史

明倫普校訓導 高義淳氏表彰

【平壤】평양명륜보통학교(明倫)

南原農蠶校實現

七個郡民待望의 明年四月에는開校?

【南原】남원(南原)농잠심으로업실수치(任實淳昌)등칠개군민이갈망하든 남원농잠학교(南原農蠶學校)설치문제에대하야 금번에는 도예산편성(道豫算編成)을보게되야 그실현성이 농후하게되엿다한은 본보에 상세히보도한바잇거니와 오는사일에 본도회계과(會計課)에서 공사입찰을식히기로 되엿다는바 해교남원디(■■)에 매수정리와 기부금 조달촉성회(南原期成會)에서는 부지(敷地)매수정리와 기부금 조달이일오전 십시부터 남원군사무실(南原郡事務室)에서장시간 협의가잇섯다한다 그런데학교위치는남원읍도통리(南原邑道通里)어구근방이라하며 학교의명칭은 남원농잠전수학교(南原農蠶專修學校)라하게되엿고 삼년제(三年制)이나실어학교령(實業學校令)에 의한 삼년제가 못될모양이라는데 개교는 명년 사월부터라고한다 으로 오는십일일에신흥칠상차호(上滿湖)가설 그라운드에서 개최하기로되어 각역원들은벌서부터 만반준비에 동분서주로노력하고 잇는바 참가희망단은대다수로 신청긔일까지 신입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漁港西湖津活況

◇…名産明太魚를爲始하야 各種雜魚空前의豊獲

【興南】서호진어항은 지금이합참이다 은어 렵계등 감색잡이는놀론 명산명태어등의 공전풍확으로 일대는 대활황을 정하고잇다한다 불동로정린(宜川郡宜川邑北洞■■■)씨는 송유토지 논이천륙백이라한다 (사진은로정린씨)

總收四十六斗에 四十八斗를執租

虫災等으로凶作입도不顧하고 無慈悲한地主의處事

【淸道】청도지방금년농작은 멸구충재의 여독으로 대감수를면치못한형편이나 일반지주들은 풍년이상의 집소를 가하게되여 총수확의 팔구할은 소작료의형식으로 지주의손에 드러가고 남어지 일이할은 소작인의입변간피 딸의격정인 대상으로박지안흘수업는것으로 보이는바 가혹한중에도 더욱 가혹한것은 동척(東拓)소작료로 정평이 잇는데 엇던지주의 소작료는 전수확을다 밧치고 오히려 수량이부족하다는혹독한 일도잇다 그실례의일단을들면 경산(慶山)지주 안모(安某)의작인청도구읍(淸道舊邑)박모는 올라추수 사십륙두에 집조가 사십팔두에 달하야 추수마당에 벌서식량이 떠러진그들의 작인가족들은 압흐로 일년간 살아나갈도리가 막연하야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는 억울한 일이 잇다는바 이와가티무자비한 지주의손에 매인 무지한 작인들은 농지령의 혜택도 밧지못하고 이런 불안과 공포중에 싸여잇다한다

知保市場移轉

祝賀式擧行準備

【醴泉】례천군 지보면마전시장(知保面麻田市場)은 거년홍수에 시장부락은 전멸을당한후 동면소화(所華)리로 가설시장을 이전한후 불편을 늣기든중 면내유지의 발긔로 번영회를 조직하여 만흔활동과 회생적로력으로 정옥기타 시가지정리가 구시장에 부럽지아니하게 완성되엿슴으로 번영회주최 본보례천

孟山德川兩郡에 四千金組員移動

累年의凶作으로利用할길업서 山間農村疲弊의反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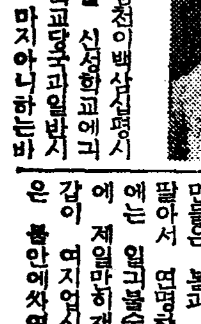
【平壤】금융조합련합회에 도착된 맹산(孟山)덕천(德川)량지의 금융조합상태를 드러본다면 연초(年初)는 이、삼할의 감수요기타농작물로 이、삼할의 감수것이 큰문제라고한다 일뿐아니라 작년의 땡해(旱害)의 여독이 남어잇는만큼비교적여유가잇서 금융조합을 리용하든농민들이 량군에서 각기이천여명식이나 타지방에 이동을한 비참한상태이어서 그나마 금융조합을 리용할생각도못하든 최하층농민들의참상이야 말노 실로한심한 현상으로 겨울을지날

全利原蹴球會

遮湖分局後援

【遮湖】함남리원군동호구락부에서는 본부사업으로 첫사업으로 전리원축구대회를 본보차호분국후원

秋本第二普校長 勤續十年記念



【元山】십년동안을 하로가티일천이삼백명아동을 내아들가티사랑하고 훈육하야 재학아동및졸업생들로부터 자부와가티 존경을밧는 교장이잇스니 그는원산제이공립보통학교의 추본일지(秋本一之)교장이다 씨는 대정십사년에 동교에부임한이래 어린이의 교육을위하야 진취(進取)할뿐 안이라일보나아가서 졸업생의 직업지도와 부인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거짓업는 성심성의로 지도하야 참다운 교육가로서 만흔칭송을밧고잇는터인데 지난삼일오전십일시부터 동교후원회와 실행회(幷愛)(實行會)동교동창회원산부인생활개선회의 공동주최로 추본교장근속십주변 표창급사은식을 거행하얏고 이어서 대한 축연이잇섯다고한다

淮陽農民恐慌

藥草代暴落으로

【淮陽】회양군은 재래로 약초소산지로 유명하야 일반 세농민들은 봄과 가을에는 약초를팔아서 연명하야 오던바 금번에는 일그불순의 관계로 그중에 제일만히재배한 강활(羌活)갑이 여지업시 폭락되어 일반은 불안에싸여잇다한다 칠십사평과 밧삼천이백사십평이부하얏다는바 학교당국과일반지민은 감사함을 마지아니하는바

襄陽郡下에大火災 降峴面所全燒

損害額이八千餘圓

【大浦】지난 이일오전세시경에 양양군강현면(降峴面) 사무소에서는불이나서 오십여평의 와가인 대건물을 전소하엿는데 당지 경찰관의 충지휘로 부근 시 금고에든 현금과 재산철의 일절 서류(書類)를 전부소실하엿다 손해는 약 팔구천원에달하리라하며 발화원인은 상금조사중이라고한다

兄따르든″明瑞″ 뻐쓰와衝突慘死

【宜川】지난일일오후두시반경에 해신자동차부(海信自動車部)뻐스가 신천온천역을 떠나 초우러관(烏羽旅館)압흘 지날지음에 오친시 김용도(金容道)의녯재아들 명서(明瑞)(七)가 치혀명철(明哲)을따라가든 도중 명철은 먼저적중으로가고 명서만이 도로복판으로 가는도중에 자동차경종이 미리우렷스나 명서는 잘듯지못하는관계로 차체가갓가히와슬때에 겨우 좌편으로 피하든중 자동차뒤바퀴에 충돌되려저서 혼도된것을 즉시 온천의원으로 데려다가 응급수당을하는 일방 다시 신천읍 공의류창만(柳昌萬)씨가 출장하야 응급치료를 가하엿스나 외부상처뿐이 아니고 내부로 륵골(肋骨)한개가 부러저서 드듸여 동여섯시경에 애처럽게도 명이끈허지고마럿다한다

地方人事

◇成樂榮氏(平壤面長)新任人事次本社秋山支局來訪

◇閔泳壽氏(■■■■)開業人事次本社平康支局來訪

樂浪時代의古蹟 安岳地方서發現

古瓦、벽돌等二十餘個를發掘 古考學上重要資料

【安岳】조선 력사상으로보아 문화절정시대이든 락랑시대(樂浪時代)의 해서지방(海西地方)은 지방명(地方名)급 행정상(行政上)구분을 물나 고고학자들은 매우고심하고 연구에 몰두하야 황해도 일대에서나는 고물이라면 아무런것이나 문자를 발견하고저 고심연구하든끄테 봉산재령(鳳山載寧)등지에서 발견한 옛기와(瓦)와 벽돌을 엇기는어렷스나 별여구자료가못되든니 약이개월전에 황해도안악군면 류성리(安岳面柳城里)에서안악면남압리 김선량(安岳面南岩里金善亮)씨 소작인수인이 추경을하다가 이상한 벽돌을 발견하고 파보앗더니 가튼벽돌 삼십여개를 발굴하엿든바 엄마전평양박물관장이가지한결과 대방(帶方)문화에 절대가치가잇든 고분(古墳)유적인것을 발견하고 곳평양박물관에 보관하엿는데 그벽돌 모작에는 일민하지왕대장(■民舍人王君墓)이라고 씨여잇다는바 이것은 오지을 벼돌은 고분임으로 고고학자간에는 귀한자료이라고하야 학자들의 실지조사가 빈번하다 고한다

信聖校基金으로 巨額土地寄附

魯晶璘氏特志

【宜川】선천유신성학교에는오래전부터 이십오만원재단법인완성에 노력중이든바 선천군선천읍

一眞明學院入學式一【全州】류천여원으로 이상석 교사(校舍)를 신축하고 십월이십일일에 당국의 인가를바든 정명녀학원(貞明女學院)은 지난십이일일에 칠십여명 입학아동과 학부형등의 참석으로 개원식급 입학식을 거행하엿다

◇寫眞…眞明學院入學式 記念撮影

體泉 知保脚戲大會

▲時日 十一月八日

▲場所 知保新市場

◇主催 知保繁榮會

◇後援 朝鮮日報醴泉支局

異次頓의死 【33】

李光洙 作 金奎澤 畫

고구려 판원의 말을 듯고보니 터마로의 한일은 과연 적은 나랏 사람의 충성이엇다。 크게 군사를 이르켜 적국을 쳐지를 생각을 못하고 겨오 단신으로 패를 부려 보해와 미해를 빼아내엇스니 고구려관원이 『조고마한 나라 충신은 되지』하는 말이 올앗다。 그러치마는 그것은 터마로의 허물은 아니엇다。 오직 신라라는 나라가 연약한 탓이엇다。 터마로의 이야기를 듯고 고구려판원은 이차돈을 놀려먹는데도를 그첫다。 더구나 이차돈이 『평양서울에 신랏군사의 말발굽소리 울릴 때가 잇스리다』하던 말이 몹시 판원의 신긔를 불편케하는 동시에 이차돈을 무섭게보는 마음을 생기게하엿다。 그것저것 합하야 관원은 이차돈에게 퍽히 쉬이라는 인상만을 남기고는 안으로 하고 이차돈은 거의 눈물이 쏘다질뜻한것을 꾹 참는다。 『거마한 고구려!』하고 이차돈은 주먹을 불끈쥐다。 『신라가 무서운줄을 알려라』하고 이차돈은 하늘을 우럴어본다。 『평양서울에 신랏군사의 말발굽이 울릴날이 잇스리라』하고 뭇넘 제 말이 퍽 장쾌하엿다。 『거마한 고구려!』하고 이차돈은 한번더 주먹을 부르쥐엇다。 『사내가 세상에 낫거든 한번 천하를 호령하여볼것이다。 대군을 몰아 적국을 부실것이다。 고구려를 오냐、집생각을버리자。 고구려를 내 한 손으로때려눕힐 생각을 하자』하고 이차돈은 무릎을 꿀코 하늘을 우럴어 큰힘과 큰 용맹을 나리시기를 빌엇다。 하현 달이 동천에 솟앗다。 무시무시하게도 맑은 달이 솟자 강물이 금시빗으로 늬렷거렷다。 알호로 보면 적국의 산들、뒤로 보면 고국의 산하늘을찌르는 한산이 자칫하면 어린 적국 사람의 긔운을 누를뜻하엿다。 게다가 젊은 가슴의 사랑의 정。 달님의 모양。 그것은 한산의 위엄을 누르기보다도 이차돈에게는 어려웟다。 서울을 떠난 첫날 밤 이차돈은 밤에 혼자 말을 달려서 도로 서울로 향하엿다。 그러나 달이 하도 밝아서、달이 하도 밝아서 중간에서돌아오고말엇다。 그러치마는 인제는 팔뻐팔십리、나래 돗친 새라도 이 밤에 다녀올수는 업는것이다。 『꿈에나、아아、꿈에나』하고 이차돈은 숨이 다 께어서 방에 들어왓다。 그러나 원체 피곤한 이차돈은 꿈을 일울 새도 업시 길히 잠이 들엇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평양시길을 떠낫다。 너른나루 지키는 판원의 물금(勿禁=旅行券)이 잇기 때문에 관문을 지날 때마다 힘이 업섯고 산을 넘어 물을 건너 이국도를 구경하면서 한개(大同江)에 다달은것은 륙국의 한파 구월 초승이엇다。 들어가버렷다。 이차돈은 사랑에 혼자 남앗다。 잠이 들것 갓지도 아니하엿다。 밝게서는 아마 파수보는 군사들이겟지、소리부는 소리가 가끔 들렷다。 이차돈은 문을 열고 뜰에나섯다。 밤은 캄캄한데 바람은자고 하늘에는 별이총총하엿다。 강시가에는 고구려군사와 신랏군사들의 회롯불이 뻘거케 춤을 추고 잇섯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절벽밋흐로 흐르는 너튼나루 물시소리가 들렷다。 이차돈의 생각은 멀리 남쪽 신랏서울로 달린다。 『여긔서 서라벌이 팔백팔십리』하는 신랏군사의 노래를 긔억한다。 『여긔서 평양이 오백오십리』하고 이차돈은 아직 보지아니한 평양을 생각한다。 언제 올찌 모르는 길、살아 돌아올지도 모르는 길。 『어머니、할아버지、달님。 서울의 낫닉은 경치들! 그러나 사내는 이런 생각을하여서는 안 된다!』

瘋 소위 뒤엉은병 ... 不斷治癒 (全國에 ... 藥)

〃中國幣制를統一〃

三日緊急法令發布

◇…四日로부터即時實行

【上海三日發聯合】國民政府는三日에 다음과가튼 布告를 發하얏다。

貨幣金融의安定을 圖키爲하야 各國의 前例에 依하야 左記를 規定하고 即時實行한다

一、今年十一月四日부터 中央、中國、交通 三銀行發行의 紙幣로써納稅及 一切의 公私債務에用하고 現銀을 使用함을 不得함。違反者는 全部沒收함。現銀의 密輸者、故意의 隱匿者、密輸를 圖코저하는者는民國緊急治罪法으로써 處分함。

二、中央、中國、交通 三銀行外의 銀行은 現在 發行의紙幣流通은 許하나 그發行數는十一月三日로써 流通總額의限度로하고 以後增發을 不得함

三、錢莊、銀號、商店及 그他個人所有의 銀本位貨幣 或은 銀塊等은十一月四日 發行準備管理委員會或은 그指定銀行에依하야 公平히 兌換함 그他의銀類는 銀額分을得함

四、法幣로하야금 對外爲替安定의目的이 되게하기爲하야 中央、中國、交通 三銀行은 無制限으로 外國爲替를 取扱함

銀弗銀塊의 流通을禁止

三日財政部에서布告

【上海三日發聯合】財政部에서는三日 다음과가튼 布告를 發하엿다

一九三五年 十一月四日 中央、中國、交通三銀行 發行의 銀行券을 法定通貨로 租稅의徵收、公私債務의 支拂一切는 法定通貨紙幣로써 決濟될것으로함

一、銀弗、銀塊를 通貨의目的으로 使用함을 一切禁止함

二、本條項에 違反이 잇슬境遇는 當該通貨金額을 沒收함

三、何人임을 不問하고 故意로 銀塊를 隱匿 또는 不法으로所有、流通하는사람이 잇슬때는 緊急治安法으로써 處分함

四、前記三銀行以外의 發券銀行의 發行券으로 財政部의 承認이 되는사람은 그대로 流通케함 但 各銀行發券額은 十一月三日 現在高를 超過함을 不得함

幣制의 改善宣言

孔財政部長

【上海四日發電通】財政部長孔祥熙氏는 幣制改善에 關하야四日如左한 宣言을 發表하얏다

各主要國이 이어서 金本位를 放棄하고 世界의 銀價格昂騰以來 我國의 貨幣價格은 過度로 騰貴하야 國內의 通貨는 緊縮現象을 呈하다 그리고 失業者 及破産者가 續出하고 政府의 海外流出、通貨의 自主不利等이 援護하야이러나 昨年七月부터 僅히三個月間에 國內의 銀流出額이二億元以下에 達하얏슴으로써國內保有銀의 流出이 激甚함을 念慮하야 昨年十月十五日에 輸出防止對策을 取하야 僅히그危機를 突破하기에 至하얏다 回顧컨대此種의 對策은 一時的의것으로서 貨幣價値의 昂騰通貨의 減少는 益益深刻하야 이러나고 世界의 銀價와 我國의 海外爲替와의差는 去益 高하야 銀密輸는 盛旺함이 必然의 勢로 政府는 準備金을 保有하고 幣制의 改革強行 金融의 改善을하기爲하야 特히 近年의 外國의 例에 則하야 十一月四日부터 이것을 實施하기로 決定하얏다。國有의 中央銀行을 改組하야 中央準備銀行이라하고 그資本은 各銀行公衆으로부터 供給하야 全公然한 機關이되게하야 力을 期하고 全國銀行의 準備金을 保管하야 各銀行의 準備銀行이 되게하고 中央準備銀行은 一切의 公共資金을 與하야 一般의 銀行이되게하고 商業銀行의 業務를 하지안토록하며 二個年後에는 紙幣發行의 權利를 占有케하게한다 政府는 同時에 商業銀行의 制度를 改善發達케하기爲하야 特히 部門을設하야 一般銀行의法律을 改하고 銀行業務의 發達을期하며 政府의通貨膨脹에 對하야서는 萬全의 策을 講究한다 그리고 十八個月을 經過하면 國家의 豫算收支는 相償되도록 準備하야야 不正한投機 不法한 物價騰貴는 嚴重히 取締하고 그立案에는 一日이라도 速히 積極 草하야 力을 擧하야 實行하기를 期하며 全國의 民衆이 全信하고 全國經濟가 回復하야 今後의 繁榮을 招來하기를 바라다

上海金融界混亂對策

突然國民政府는 銀國有斷行을公布

爲替比率一志二片半에安定

紙幣를中銀에集中

【上海三日發聯合】財政部長孔祥熙氏는 三日 銀國有斷行을 聲明하엿다 그聲明要旨는左와如하다

(一)銀을國有로함 (二)中央銀行을準備銀行으로하고 一切의銀을中央銀行에集中함 (三)爲替比率은 一志二片半으로安定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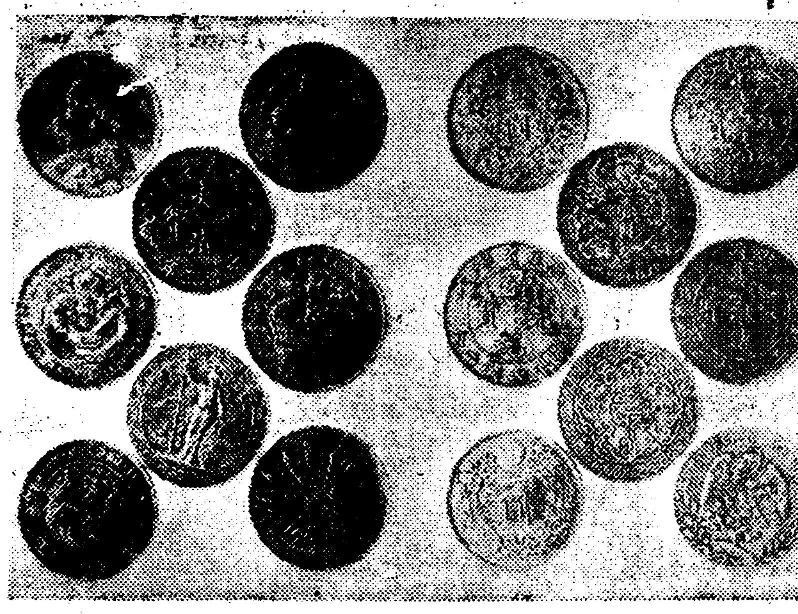
兌換者殺到!

中銀은兌換을回避

【上海三日發電通】汪精衛氏遭難後 上海의 金融界에서는 政變의念慮가 濃厚케되고 인플레人氣와 紙幣不安이 加勢하야 各中國發券銀行에 兌換要求가 續出하는데 各銀行은 中央銀行紙幣로써 兌換함으로 現銀所有者는 金推尋騷動을 나타내엿다 現在에 各中國銀行은 거의 兌換停止의狀態로 中央銀行도 百元以上은 여러가지의 口實알에 兌換을 回避하엿다 그래서 三日아츰 南京으로부터 來滬한 孔祥熙氏는 밤에 이르기까지 當地金融界首腦部와 對策을 協議하엿는데 政局念慮와 紙幣不安이 解消치안는以上 月曜日의 當地金融界는 大混亂에 빠질것으로 中國財界의 一部에서는 念慮하엿다고한다

英國特使와 協議結果

【上海三日發聯合】國民政府는金融危機를 打開키 爲하야 銀國有를 斷行하고 銀爲替를 確實히 連絡케하기에 至하얏는데 右決定에 앞서 蔣介石氏는 十月二十八日 鄕里奉化로부터 南京에 歸還하는 途中 上海에 들러서 孔祥熙氏邸에 財政部長 孔祥熙、英國 리스大使、가도간氏 經濟特使『리스·로스』氏와 會見하고 中國語를 解得하는 英國人 通譯을 交하야 午前九時부터 一時間에 亘하야 重要協議를하고 右會議의 結果 銀國有斷行에 對하야 大體 成案을 確保하얏슴으로 電話로 宋子文氏를呼出하야 二十分에 亘하야 協議하얏스며 十月二十九日에 至하야 銀國有幣制改革斷行을 最後的으로 決定하고 今回의發令을 보기에 至한것이라고 解한다



◆…中國各樣의銀貨…◆

上海爲替暴落

【上海四日午前十時一分發聯合】中國銀國有令發布를 듯고 四日의爲替市勢는 人氣가 混亂하야 爲替의市勢가 안섯스나 例보다 늣기를一時間으로 午前十時에 겨우 市勢가섯엇다 이것을土曜의 止價에比하면 對英半片低의一志二片十六分九對米一弗低의二十九弗十六分十三對日四圓四分一低의 百三圓二分一로모두暴落하엿다

上海標金暴騰

【上海四日發電通】四日의標金市場은 標準市勢一千百五十弗을三日보다 十弗上廻하야 一千百六十弗에始한뒤 一面 中央銀行發表의 對外爲替는 對英賣一志二片八分三 買亦是 八分五 對米賣二十六弗十六分七 買三十弗對日賣百二圓二分 買百四圓二分一로 三井 正金兩銀行의 對英一志二片十六分五 對米二十九弗十六分十 對日百三圓의各目 賣價를 나타냇는데 그뒤의 市勢는 多少安定氣味이다

對英『크레딧트』를 基礎로한改革斷行

【上海四日發聯合】이번의 中國幣制改革은 對英크레딧트를 基礎로한것으로 이에 依하면 中國의 通貨는 거의 銀本位를離脫한것이 되는데 그中要項은

一、中國의 對英爲替를 一志二片二分一(卽海關金單位는 二元二十五仙)에 安定케함

一、銀輸出禁止는 國際條約에 違反함으로 平衡稅 (現在六分七厘五毛)를 一擧 五割로 引上하고 그結果 銀은輸出禁止와 同樣으로됨

一、一割의 銀輸出稅는 그대로두고

一、對外貿易의 決裁는 中央銀行으로하여금 當케하고 맡허서 中國、交通兩銀行의爲替業務는 中央銀行의 손에回收케함

一、中國人에 對하야는 一切兌換치아니함

一、現在流通하고잇는小洋、銅幣等을逐次回收하고 對英一志二片二分一은 土曜日의 倫敦先物의 銀塊市勢二十九片을로 換算하면 理論上의對英『파리레이』가約一志十一片八分五로되야 約六割二分의 平價切下가 되는데 中國의 對外爲替는 이미 今年四月外銀모랄사포르트斷行以來 海外銀市勢를 훨신下廻하고 다시 過般以來의爲替大暴落으로 對英爲替는 이미 一志三片八分一(土曜日)이다

一、爲替의 無制限賣買斷行에는 巨額의 外資借款이 必要하다

一、結局 海關金單位에 依하야 二弗二十五仙 爲替安定의水準은 一志二片二分의 可로 될것이다

明年度公債 一億圓減少

目下形勢로는不能

【東京電話電通】政府는 不遠에 百億圓을 突破하라는 公債累增이 經濟界에미칠影響을 憂慮하야 目下 直面한 明年度豫算編成方針에잇서 來年度新規公債發行額을 今年度豫算의 公債에서 明年度歲入自然增收額을 적게보고 減少를 圖키로한바 最近 大藏省主計局査定局議의結果 明年度歲入自然增收概算額은 겨우一億圓內外에 不過함으로 이것을 編成方針대로 節減할수잇드래도 一億圓內外의公債를 節減할수잇슴에不過하고 一面歲出에잇서는國防費를 비롯하야 農村匡救其他自然多額의 經費를 計上치안흘수업슬뿐아니라 主計局의 査定에對하야 陸海軍을 비롯한各省이猛烈한 復活要求를 提出함은明若觀火로 豫算閣議에 大藏省査定原案을 가온데天 閣內에 相當한 政治的對立이 잇슬모양이며 그結果 明年度의公債發行額을 今年度보다 一億圓減少가 어려움은勿論 今年度公債發行額 七億七千萬圓을 死守하는것만으로도 復雜한 政治的解決이 必要치안흘가 觀測되는 다

米收穫 二回豫想

五日正午發表

十一月一日現在 朝鮮米第二回收穫豫想은 四日正午에 發表할豫定이엇스나 그集計가 完了못되야 五日正午에 發表할터이라고

金融界의觀測

【上海三日發聯合】國民政府의銀國有令에關하야 上海金融界에서는 如左한 觀測을하고잇다

一、財政部가 孔部長의 聲明대로 法令을公布하면 中國은事實上 兌換券의停止로되고만다

一、銀國有가 實現할與否는 專혀 外國銀行의態度如何에잇다

一、爲替의無制限賣買는 全世界에잇서서 英國銀行以外 實際로 行한 銀行이업다 從하야 中國의各銀行의 無制限賣買實現 까지 低下하엿슴으로 實質的平價切下는 겨우 四分三厘가량이다 그러고 對英크레딧트는 그金額 一千萬磅이라고하며中國全土의 鐵道를 擔保로成立한것이라고한다

中央準備銀行

名稱改正을決定

【上海三日發聯合】國民政府는銀國有令斷行과 同時에 中央銀行을『中國中央準備銀行』으로 改稱하기로 決定하엿다

▲鱈油不定量入札

鱈油共販十一月不定量入札은三日再入札한結果 朝鮮油脂에 一擔當三圓八錢의 高價로서 落札하엿는데 十月分不定量에 比하면十七錢高로 定量에比하드래도 三錢高로 豐漁不安을 解消하는高價를보혓다

米資金利 一錢三厘

今月一日實施

今年度의 米穀資金 金利는 當初 昨年과가티 日步一錢四厘五毛로 各金融業者가 貸出하는바 不遠 受入키로 되엇고 米穀應急低利資金의 受入金利가 年四分으로 引下한때문에 金融業者는 八分의 利差를 豫想하고 年四分八厘 卽 日步一錢三厘로 貸出함을 決定하고 이미 十一月一日로부터 實施한다 右 低金은 結局 預金部의 事情上 十二月中旬以後에 取入케될모양인데 지금까지 各金融業者는 前年度 低資의 償還未了인것을 自己資金과 混合하야 流用하는터이라고 한다

中國銀國有令

幣制의安定?

中國南京政府는 貨幣安定을 圖키爲하야 銀國有令을 公布實施하얏는바 十一月四日로써 中國의幣制와 爲替가 安定되겟다。今後經過를 보아야하겟스나 對中貿易 關係에잇서서 中國政府의 如斯한 徹底的安定策은 好感的으로보고잇다

南京事件이 弱氣的作用

汪兆銘狙擊의 南京事件으로 市場에는 陰鬱氣分이 떠돌고 日中外交에一暗影을 投한것이라着 今後의 中國政界動向이 材料로서登場하얏다。親日派인汪氏의 遭變은 日中經濟提携、外交協調에 頓挫를招한것만은 事實로서 비록 이번南京事件으로 今後의中國이 一轉反日傾向을强化치는안는다 할지라도 日中親善으로한 日本國力의 大發展을 期待하는株界로서는確實히嫌忌할事件이라한다 七月로부터 十月까지 四個月間의 上向市勢뒤에 생긴 南京事件은 그러치 안어도 反動을 畏케하던 此際에잇서 弱氣에 有力한 材料를 提供케된것이라할수잇서 이 不安이 市勢에 弱氣的作用을 하게되것을 否認할수 업게되엇다

雙方氣迷深甚

大勢도强弱區區

東新百六十圓時價에 對하야 强氣는 十一月에 爆發을 期하는 一方 弱氣는 騰勢飽和의 餘地가 업고 相當한 反落을 示할것이라하야 强弱觀이 懸殊한모양이다

◇强氣=九年三月七日의 東京短期 百八十二圓三十錢을 頂上으로하고 同六月百四十圓臺로 떠러진 市勢를보면 九年六月以降今年九月十七日까지 百六十圓臺가 어엇스며 그間 三個月間 高價百五十圓臺 低價百三十圓臺에서 底練을 하얏섯든즉 下値는 乏하고 九月十八日 高價示現後 今日까지의 押目底는 百五十六圓을 下廻치안엇스며 五月一日의高價百五十五圓七十錢 以上으로保合한點으로보아도 當然히騰勢가 繼續될것이라고 主張한다

◇弱氣=八年十一月二百八圓七十錢에서 一年間下落하야 九年十一月에百十九圓九十錢이엇서 그下落幅八十八圓八十錢에 對하야 中間값은 百六十四圓三十錢인즉 九年十一月부터 現在에至한 一年間에 百六十六圓二十錢으로 겨우半値에 戾하엿슴에 不過하며 此等大勢的 硬軟論以外에 目前觀으로서는 過去日產이 八週間陽線을 引되나서 第九週에 十圓下押되엇슴에 倣하야 東新도 陽線第八週를맛치고 第九週인今週는 一押이잇다는 說이잇서 市場은 全혀 氣迷에陷해잇다。

商況【四日】

株式 堅强裡에 保合

前場頑强 休日後인今前場은低價賣物도업고 中國의銀國有令實施好感도잇서 强含裡에 結局再昨前引보다 東新五十錢高인 百六十一圓七十錢大新三十錢高인 九十七圓丁 日產三十錢高인 七十九圓五十錢、日魯五十七圓八十錢에 各大引되고 朝新三十二圓八十錢帝人百三十六圓五十錢이잇섯다

◆東新 [illegible]

後場保合 後場은 東新百六十二圓丁、日產 七十九圓六十錢 大新九十七圓十錢 朝新三十二圓八十錢에 堅調寄後保合裡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 [illegible] ◆京南鐵道 [illegible] ◆東亞蒲產 [illegible]

市場六感

株 中國은 銀國有令을 公布實施◆이로서 中國財界가 安定되겟가? 우선好感해두는것이 조흘듯◆一方 一日에突發한 親日派汪兆銘遭難이 嫌氣的材料로登場◆東新이 비록依然底堅하야 百六十圓臺로保持되는 모양이나 ◆戰爭氣分解消되에 財界實勢良好等 好材料를 云爲할대로 한러이오 은근히日中親善이란國力的 大材料를期待함이至大하든판에 南京事件突發은 市勢根據를 動搖케함이不少◆反日傾向이 强化되다고 一概로 悲觀은 안되다할지라도 買根據를 動搖케한點에잇서 市勢를 抑壓할것만은事實일듯◆이래저래東新百五十圓 近處까지 떠러지리라는弱氣論에기운이생기게 되나보다

米 昨今의 市勢는 全혀 膠着狀態!過去의 波瀾이 너머나 甚하엿든만큼 찰아리 當然◆十二月限의 二十九圓七十錢은 一時的 神經過敏의時勢이엇고 十一限의 二十七圓○는 一時的現象이엇섯다 그러나 一限의 二十七圓八九十錢의 保勢는 可謂 風靜限息의感이 不無◆客月의當限渡米가 大部分 古米로 意外大受渡를 行하엿스니 本月의當限受渡도 또한 古米로되지안흘지 몰라◆何如間 古米의壓迫과 新米의威脅을 受하는此際인만치 一段低落을 豫期할수도잇다 그러나 地方農家의態度로 보아서 深入도亦難企◆實로 압흐로 政府의 買上이 걸처 잇는만큼 持米側은 그時期가 到來하기까지 賣惜할모양◆그러고 政府로서는 高米價에는 買上을中止하려하는 意思이나 그러나 압흐로 高米價를 防止하라면 적어도 政府米 七百萬石程度는 常備하여야 할일◆그럼으로 政府의 買上은 早晩間에實現할것을可期

朝取株式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深入도亦難望

產地事情보아

……形勢를 示함뿐이다。實로 朝鮮米의 第二回豫想은 或은 增收或은 減收로 그豫測說이 區區不一하엿슴으로 一、二十萬石의 減收程度는 別問題이엇을것갓고 結局 日本內地의 第二回豫想發表의 如何에依하야 大勢가 左右되지안흘가한다。

客月의 當限受渡는 各地共히豫外의 大受渡이엇스며 受渡된것이 大部分 古米인만큼 古米의壓迫을 加하엿슴뿐아니라 政府의 古米撤下가 加해하고 從하야 新米의出廻가 바야흐로 殷販하려하는 此際인만치 一段低落을 豫期할수잇스나 그러나 產地의 事情으로보아서 深入은 期待키難할것갓다 政府의 買上이 압헤걸쳐잇는만큼 地方農家에서는 그時期에 일으기까지 집짓 賣惜할모양이며 又는 朝鮮의 長期의 正租貯藏이 얼마큼 買方의 後援이 되어잇슬뿐아니라 數三年以來 農家는 實情한結果 그만한 利益을 見하여왓슴으로 農家의實情도 年中行事로 알고잇다 本年의 朝鮮米作은 豐作이라할수잇스나 日本內地의 米作은 大凶作後의 未滿으로 前途需給不安이 업지아니함으로 大體 米價는 深入할餘地가 업슬것갓다 果如何?

今日財界(四日)

◆米 仁川期米先限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朝新 東新 日產 大阪紡績 大阪人絹 大阪鐵 [illegible]

北濱情報【大阪電話】

對中貿易은 生絲를 筆頭로 人絹、紡織機械類等 輸出調를 呈하엿스나 大株의 散調를 비롯하야 漁業條約締結交涉進展의 日魯高로 重工業株가 堅調이엇다。目前은 材料없음으로 新規取引이업고 商況不活潑明

參西 三三·〇◆에라파이新 ◆日魯 ◆鮮滿開拓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甲 五分利	一〇四、〇五
一回四分利	九八、五〇
二回四分利	九八、五五
佛貨四分利	一八五、九〇

期米 低迷裡에 彷徨

前場保合 再昨後場 阪地二十九圓八十八錢止와 共히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하야 二十七圓九十錢인 一丁反高를 擲하고 三十圓丁의 三番同價로 始한後 阪地九十九錢의 六番同價로 三十圓丁의 三番同價의 止場을 伴하야 四節八十七錢으로 結局 九十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軟弱 後場은 二十七圓九十二錢에 二丁高로 始場後五節八十八錢에 跳하고七十九錢에 止場하다

全혀膠着狀態

動機待의商態

一昨日 阪地는 僅히 一丁上鞘로 當地는 六丁上鞘로 發會한後 幾分 軟味를添하야 阪地는三十圓大臺의 割彼인 九十錢臺를 維持하고 當地는 七圓八十錢臺를示하엿스나 滑落을許하지안코 結局 底迷不振으로 全혀 膠着狀態를 呈할뿐이다 要하면 朝鮮米의 第二回豫想은 第一回에 比하야 十萬石內外의 減收로이 發表前부터 濃厚하엿슴에도 市勢에는 何等의影響이업시 依然 動機待의商狀을 示하야 今朝後 分散味를 助長하나 그러나 또

趙俊鎬米豆取引店 東 仁川海岸町三ノ乙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各地正米

堂島前場賣買【大阪電話】◆賣方=中谷地場 正米側 東京側 地場軟派 中東側 中先乘換 ◆買方=岡米、朝鮮側 中先乘換、地場强氣側 神戶側

京城引弛 期米不味와 所持側의賣氣旺盛으로 市況이不振하야 氣配十五錢引弛인 丸仁三等二十八圓丁 四等二十七圓七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丁

仁川軟調 期米의 不勢移와 日本內地俵度의 不買로 產地買物도 잘팔리지안어 市況이繼續하야 十五錢低의 軟調를 呈한 丸仁三等二十八圓丁 四等二十七圓七十錢

釜山保合 市場出廻三、五〇〇叺、貯藏實施로 產地는 강會떠러지지안는一方 此邊 低價一巡으로보는 買氣가잇서 市勢

群山續崩 [illegible]

木浦小强 [illegible]

大邱同調 [illegible]

大陸商會 金·白·銀·金 賣買 京城府茶屋町壹壹○番地(小廣橋側) 電話本局三三一六番 振替京城五五四番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아세아證券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二ノ一 日生빌딩二號室 電話本局 四六四九 四七三九 四七八六 營業案內 每日進呈 아세아日報

金城商會 金銀白金 分析 賣買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郵送料先金) 京城鍾路一丁目二十二番地 電話光化門二九三七番

金融【四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四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四日】

◆京城綿系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지카日期變 ◆鑛油冲價 ◆豆粕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四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 ◆實定 代引 日步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四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商品【四日】

◆大阪綿系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系 ◆大阪砂糖 ◆海外砂糖 ◆各地正租市勢 [illegible]